

『論語集注』의 문헌학적 읽기(1)

— 「學而」편 1장의 주석 분석

柳浚弼*

- | | |
|-------------------------------|-------------------------------|
| I. 들어가며 | IV. 제2절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의 주석 읽기 |
| II. 「學而」篇 篇題의 의의 | V. 제3절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의 주석 읽기 |
| III. 제1절 '學而時習之, 不亦說乎'의 주석 읽기 | VI. 나가며 |

• 국문초록

이 글은 『논어집주』 읽기의 역사라는 방대한 영역에 다가가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서, 『논어집주』에 대한 일련의 문헌학적 읽기 작업의 일부분이다. 문헌학적 읽기를 방법으로 삼아 주자의 『논어집주』를 그 형성 과정 속에서 면밀히 다시 살폈다.

주자의 『논어집주』는 그 자체로 문헌학적 방법을 적극 활용한 문헌학적 저작이다. 주석 모음이라는 제목처럼 주자는 여러 선학들의 견해를 두루 아우르는 한편으로 새롭게 재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주석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의미의 층위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논어집주』는 문헌학적 읽기의 대상이기도 하다. 『논어집주』의 최종 형태에 이르기까지 주자는 다양한 주석들과의 고투 과정을 거치면서 장기간 수정하였다. 이 양상을 살피기 위해 『논어정의』·『논어혹문』·『주자어류』·문집의 기록들을 시간에 따라 재배열하고, 그런 다음 『논어집주』의 주석을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며 다시 읽었다.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논어집주』의 「학이」편 편제는 『논어집주』 이전의 주석서의 체례를 계승하는 한편으로 그들과는 구별되는 명확한 해석적 입장을 천명하면서 「학이」편의 독특한 위상을 드러내었다. 제1절의 주석 읽기를 통해서, 정자와 사랑좌 그리고 주자의 주석이 긴밀한 상호 연계 속에서 배치되었음을 보았다. 제2절의 주석 읽기에서는, 주자가 정자의 주석을 전면화하는 방식으로 ‘朋-衆-樂’의 연쇄를 마련하여 다른 견해들과 경합하는 양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제3절의 주석 읽기를 거치면서, 배움을 상승의 단계론으로 이해하는 방식에 저항하면서 해석적 순환을 만들어내는 주석의 구조를 확인하게 되었다.

주제어 : 『論語集注』, 문헌학적 읽기, 『論語精義』, 『論語或問』, 『朱子語類』, 『論語詳說』

I. 들어가며

남송 주자에 의해 사서학이 정립되고 원대 이후로 주자학이 교학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으면서 주자가 저술한 『論語集注』 또한 역사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학교 교육과 과거 시험 등 국가 제도에 깊이 관여됨은 물론이고 사상의 형성과 변화를 가늠하는 기준처럼 작용해 왔다.¹⁾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논어집주』는 여전히 최고 고전의 반열에 올라 독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논어집주』는 그 등장 이후부터 장구한 읽기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읽기와 해석이 양산되었던 것은 실로 자연스런 일이다.²⁾

이 글은 『논어집주』 읽기의 역사라는 방대한 영역에 다가가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논어집주』에 대한 일련의 문헌학적 읽기 작업의 일부분이다. 이후에 펼쳐질 읽기의 역사를 가늠하는 최소한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문헌학적 읽기를 방법으로 삼아 주자의 『논어집주』를 그 형성 과정 속에서 면밀히 다시 살피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서 문헌학적 읽기라 함은, 첫째, 『논어집주』에 원용된 다양한 주석들이 어떤 관련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는지 또 그 함의는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읽는다는 뜻이다. 달리 말해, 연원을 달리 하는 구성 요소들이 모여 새로운 문헌을 구성하는 방식에 주목하겠다는 말이다. 둘째, 『논어집주』의 형성 과정을 헤아리기 위해 『논어집주』 이외의 다양한 주자 문헌 자료들을 서로 교차하며 읽으려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기존의 성과들에 기반하여 관련 자료들을 실증적으로 재정리하는 작업이 포함될 것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논어집주』는 주자의 삶의 진행 과정에 따라 부단한 수정과 변개를 거쳤다. 긴 시간에 걸쳐 형성된 다양한 시각이 집적된 결과물이다. 주자의

1) 葛兆光, 『中国思想史』(第2卷), 上海:復旦大學出版社, 2000, 387~407면; 劉海峰·李兵, 『中國科舉史』, 上海:東方出版中心, 2004, 252~263면; 周春健, 「元代四書學研究」, 華中師範大學博士論文, 2007, 26~51면; 피터 볼 저, 김영민 역, 『역사 속의 성리학』, 예문서원, 2010, 139~175면; 衣川強, 『宋代官僚社会史研究』, 東京:汲古書院, 2006, 464~468면; 이노우에 스스무 저, 이동철 외 역, 『중국 출판문화사』, 민음사, 2013, 212~230면 등.

2) 佐野公治, 『四書學史の研究』, 東京:創文社, 1988; 唐明貴, 『論語學史』, 北京:社會科學出版社, 2009; 황준지에 저, 안유경·최영진 역, 『동아시아 유교경전 해석학』, 문사철, 2009; 이영호, 『동아시아의 논어학』,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9 등 참조.

『논어집주』는 북송 학자들의 주석들과 심각한 토론 과정을 거쳐서 나왔고, 이에 따라 『논어집주』의 주석은 단순한 병렬이 아니라 의도적 배치의 결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논어집주』에 원용된 주석들 사이의 관련성은 복잡한 맥락과 효과를 내포하고 있다. 이 실상에 다가가려면 주자의 관련 문헌을 두루 참조하여 서로 견주어 읽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문헌학적 읽기의 방법론적 의의라 하겠다.

이 글은 『논어집주』의 주석 읽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논어』와 공자의 참 뜻을 궁구하는 데에는 목적을 두지 않는다. 『논어집주』의 주자 주석을 중심으로 주자와 송대 학자들이 『논어』를 어떻게 읽었는지 살피는 것이 주목적이다. 달리 말하자면 주자의 『논어집주』는 송대 학자들이 『논어』를 읽어온 복잡다기한 내력들의 집대성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북송 도학을 계승하는 입장에서 주자 개인의 시각에 따라 저술된 책이지만, 『논어집주』는 주자 이전 및 당대의 다양한 견해들과 경합하는 과정을 거쳐 그 결실을 편집한 성취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논어집주』에는, 송대 학자들의 『논어』 읽기 과정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변 텍스트들이 수시로 출몰하여 겹쳐지는 장면들이 두루 내포되어 있다. 잘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 잘 읽기 위해서 달리 무엇을 더 읽어야 했고 어떻게 읽으려 했는지 등등을 살피는 것도 이 글의 또 다른 관심이다.

『논어집주』를 잘 읽기 위해서 주자의 관련 문헌들도 상호 교차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고 했거니와, 기실 주자 문헌은 그 성격이 다양하다. 『논어정의』와 『논어혹문』과 같이 『논어집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저술은 물론이고, 『주자어류』의 강학 문답 자료와 더불어 주자 문집에 수록된 논어 관련 언급들까지 두루 포함되기 때문이다. 비록 각기 비중은 다르겠지만 본고에서는 이들을 가급적 최대한 망라해서 『논어집주』의 문헌학적 읽기에 원용하고자 한다.

일단 본고에서는 주자 후대의 주석들은 필요에 따라 참고는 하되 직접적인 논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논어집주』의 주자 주석에 집중하여 그 이면의 맥락과 의미를 살피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후대의 계승과 변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논의의 편의상 주자 이후의 사례를 거론한다 하더라도 주자의 『논어집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경우로 제한할 것이다.³⁾

3) 필자는 오래 전에, 「『論語』 경학에서의 “學” 개념과 그 인식 층위-조선 주자학자의 “學而時習之”章 주석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 79, 2010에서 조선 학자들의 주석을 통해 『논어집주』의

『논어집주』의 문헌학적 읽기를 표방하는 것에는, 조선 시대 이래로 주자 문헌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계승하려는 의도도 작용하였다. 단적으로 주자 서신을 선별적으로 재편집한 『朱子書節要』와 주자 문헌의 선집들 그리고 『朱子大全節疑』와 『朱子言論同異考』이래로 지속된 주자 문헌 주해 및 비평 작업들과 어록체 풀이 등, 주자 문헌 읽기와 관련하여 축적된 우리나라의 문헌학적 전통은 면면하다. 『논어집주』로 제한해서 보더라도 주자 문집에서 관련 언급을 뽑아 편집한 김창협·어유봉의 『論語詳說』의 성취를 빼놓기는 어렵다.

이처럼 주자 문헌에 대한 문헌학적 정리와 읽기는 한국 학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을 뿐더러 집요할 정도로 지속적이었다. 이러한 축적된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그간 다양한 노력들이 경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한 구석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⁴⁾ 이런 이유에서 본고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논어집주』의 문헌학적 읽기는 조선시대 학자들이 남긴 문헌학적 성취에도 적잖게 의존할 것이다.

II. 「學而」篇 篇題⁵⁾의 의의

① 『논어집주』의 본문은 주자가 「學而」篇의 요점을 간추린 篇題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 편은 책의 머리 편이 되므로 기록한 것이 근본에 힘쓰는 뜻이 많으니, 바로 도에 들어가는 문이고 德을 쌓는 터전이니, 배우는 자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모두 16장이다.

주석을 검토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아주 제한적인 자료에 한정된 논의였을 뿐만 아니라 접근 방식 또한 본고와는 전혀 다르다. 본고는 이전 연구와의 관련을 최소화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쓴 글이다.

- 4) 문헌학적 체계와 주석학의 위상에 대해서는, 류탁일, 「韓國文獻注釋史序說草(1)」, 『과전김무조박사회갑기념논총』, 동간행위원회, 1988; 『한국문헌학연구』, 아세아문화사, 1990, 305~319면; 심경호, 『한국한문기초학사』 (3), 태학사, 2012, 263~293면 참조.
- 5) 『논어집주』의 「서설」은 『논어』의 본문이 아니므로, 본고에서는 『논어집주』의 주석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학이」편부터 논의하기로 한다.

此，爲書之首篇，故所記多務本之意，乃入道之門積德之基，學者之先務也。凡十六章。⁶⁾

아주 짧지만 요령을 득한 문장이다. 「학이」편이 『논어』의 첫 번째 챕터임을 뜻하는 “首”라는 글자에 힘이 실린 듯하다. 원문의 글자에 주목하면, 이 “首”는 이어지는 “本”·“門”·“基”·“先” 등으로 그 함의가 변주되어 올린다. 처음이므로 근본이고 들어서는 입구이면서 쌓아감의 토대이므로 먼저 힘을 쏟아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주제적으로 다른 글자의 의미를 아우르는 “本”은 『논어집주』 「학이」편의 주선율이다. 이후의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될 문제이거니와, 다만 이렇듯 단순명료한 문장으로 주자가 「학이」편의 핵심을 정리한 것이 어느 시기쯤부터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를 확인하는 문제는 꽤 중요하다. 주자의 「학이」편제 문장이 적잖은 의의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논어집주』의 체례 완비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물론 이 편제 문장은 기본적으로 「학이」편에만 해당되는 글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동시에 『논어』의 나머지 19편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한 체례를 요구하게 된다. 『논어집주』의 전체 체례가 구비 되어야만 정식으로 노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이」편제 문장은 『논어』 전체에 대한 주자의 기본 인식이 정립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함축한다. 둘째, 통용 『논어집주』에는 「학이」편 뿐만 아니라 나머지 19편에도 편제가 씌어져 있다. 그러나 그 각각의 비중이 많이 다르다. 단적으로 「학이」편제만이 예외적으로 편제의 전체 주지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예외성은 주자의 「학이」편 이해가 『논어』에 대한 이해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함축한다.

「학이」편제 문장의 이러한 특성과 의의는 『논어집주』 이전의 대표적인 『논어』 주석서들과 견주어 보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비교 대상은 陸德明의 『經典釋文』, 皇侃의 『論語義疏』, 邢昺의 『論語注疏』⁷⁾ 등이다. 『논어』 20편의 편제 모두를 비교하

6) 성백효, 『현토완역 논어집주』(개정증보판), 전통문화연구회, 2007, 27면. 이하 번역은 기본적으로 이 책을 따르기로 한다. 이 번역본이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어서이다. 다만 경문은 교정청 언해본의 현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석의 번역은 경우에 따라 수정하여 인용한다. 이하 각주 표시는 생략한다. 그리고 논의의 편의상 원문 노출이 필요한 경우 번역문 아래에 병기하겠다.

7) 인용은, 陸德明, 『經典釋文』(欽定四庫全書) 卷23~24; 皇侃, 『論語集解義疏』(欽定四庫全書); 邢昺,

는 것은 분량도 많고 지나치게 번거롭다. 그 대신에 그 특징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간추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주자 이전 대표적 『논어』주석서와 『논어집주』의 篇題 비교

편명	서명	篇題
學而	釋文	以學為首者，明人必須學也.
	義疏	論語是此書總名，學而為第一篇別目，中間講說，多分為科段矣. 侃昔受師業，自學而至堯曰凡二十篇，首末相次，無別科，而以學而最先者， 言降聖以下皆須學成，故學記云玉不琢不成器人不學不知道，是明人必須學乃成. 此書既遍該衆典以教一切，故以學而為先也. 而者，因仍也，第者，審諦也，一者， 數之始也. 既諦定篇次，以學而居首，故曰學而第一也.
	注疏	正義曰：自此至堯曰，是魯論語二十篇之名及第次也. 當弟子論撰之時， 以論語為此書之大名，學而以下為當篇之小目. 其篇中所載，各記舊聞，意及則言. 不為義例，或亦以類相從. 此篇論君子·孝弟·仁人·忠信·道國之法，主友之規， 聞政在乎行德，由禮貴於用和，無求安飽以好學，能自切磋而樂道，皆人行之大者， 故為諸篇之先. 既以學為章首，遂以名篇，言人必須學也. 為政以下，諸篇所次， 先儒不無意焉，當篇各言其指，此不煩說. 第，順次也，一，數之始也. 言此篇於次當一也.
	集註	此為書之首篇，故所記多務本之意，乃入道之門積德之基，學者之先務也. 凡十六章.
為政	釋文	先學而後從政，故為政次學而也.
	義疏	為政者，明人君為風俗政之法也. 謂之為政者，後卷云：政者，正也. 子率而正， 孰敢不正？又鄭注周禮司馬云：政，正也. 政所以正不正也. 所以次前者，學記云： 君子如欲化民成俗，其必由學乎？是明先學後乃可為政化民，故以為政次於學而也.
	注疏	正義曰：左傳曰學而後入政，故次前篇也. 此篇所論孝敬信勇，為政之德也，聖賢君子， 為政之人也，故以為政冠於章首，遂以名篇.
	集註	凡二十四章.

『論語注疏』(武英殿十三經注疏)에 따른다. 아울러 黃懷信, 『論語彙校集釋』(上·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의 수록 조목들과 대비하였다.

- 8) 이 문장은 이 편의 편차 이유와 주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글자의 발음과 뜻 풀이가 본령인 『經典釋文』의 성격상 篇題로 보기는 어렵겠다.

八佾	釋文	없음
	義疏	八佾者, 奏樂人數行列之名也. 此篇明季氏是諸侯之臣而僭行天子之樂也. 所以次前者, 言政之所裁, 裁於斯濫, 故八佾次為政也. 又一通云: 政既由學, 學而為政, 則如北辰, 若不學而為政, 則如季氏之惡, 故次為政也. 然此不標季氏而以八佾命篇者, 深責其惡, 故書其事以標篇也.
	注疏	正義曰: 前篇論為政. 為政之善, 莫善禮樂, 禮以安上治民, 樂以移風易俗, 得之則安, 失之則危, 故此篇論禮樂得失也.
	集註	凡二十六章. 通前篇末二章, 皆論禮樂之事.
里仁	釋文	里猶鄰也, 言君子擇鄰而居, 居於仁者之里. ⁸⁾
	義疏	里者, 鄰里也. 仁者, 仁義也. 此篇, 明凡人之性易為染著, 遇善則升, 逢惡則墜, 故居處宜慎必擇仁者之里也. 所以次前者, 明季氏之惡由不近仁, 今亦避惡從善, 宜居仁里, 故以里仁次於季氏也.
	注疏	正義曰: 此篇明仁. 仁者, 善行之大名也. 君子體仁, 必能行禮樂, 故以次前也.
	集註	凡二十六章.
公治長	釋文	없음
	義疏	公治長者, 孔子弟子也. 此篇明時無明君, 賢人獲罪者也. 所以次前者, 言公治雖在柱濫縲紲, 而為聖師證明若不近仁, 則曲直難辨, 故公治次里仁也.
	注疏	正義曰: 此篇大指明賢人君子仁知剛直, 以前篇擇仁者之里而居, 故得學為君子, 即下云魯無君子, 斯焉取斯, 是也, 故次里仁.
	集註	此篇皆論古今人物賢否得失, 蓋格物窮理之一端也. 凡二十七章. 胡氏以為疑多子貢之徒所記云.
중략		
子張	釋文	없음
	義疏	子張者, 弟子也. 明其君若有難臣, 必致死也. 所以次前者, 既明君惡臣宜拂衣而即去, 若人人皆去, 則誰為匡輔? 故此次明若未得去者, 必宜致身, 故以子張次微子也.
	注疏	正義曰: 此篇記士行交情仁人勉學, 或接聞夫子之語, 或辨揚聖師之德, 以其皆弟子所言, 故善次諸篇之後.
	集註	此篇皆記弟子之言, 而子夏為多, 子貢次之. 蓋孔門自顏子以下, 穎悟莫若子貢, 自曾子以下, 篤實無若子夏. 故特記之詳焉. 凡二十五章.

堯曰	釋文	없음
	義疏	堯曰者, 古聖天子所言也. 其言天下太平, 禪位與舜之事也. 所以次前者, 事君之道, 若宜去者拂衣, 宜留者致命, 去留當理, 事迹無虧, 則太平可觀, 揖讓如堯. 故堯曰最後, 次子張也.
	注疏	正義曰: 此篇記二帝三王及孔子之語, 明天命政化之美, 皆是聖人之道, 可以垂訓將來, 故殿諸篇, 非所次也.
	集註	凡三章.

陸德明의 『經典釋文』은 글자 소리와 뜻 풀이에 중점을 둔 저술이라 앞 두 편에만 편제 제사와 유사한 설명이 붙었을 뿐 그 후로는 거의 언급이 없다. 반면에 皇侃의 『論語義疏』에서는 매 편 시작 부분마다 “앞의 편 다음에 둔 까닭은”(所以次前者)이라는 식의 설명이 반복된다. 邢昺의 『論語注疏』에서도 “그러므로 앞의 편 다음 순서에 두었다(故次~)”는 구절이 계속 등장한다. 따라서 주자 이전의 대표적 주석서들은 『논어』 20편의 편차가 철저히 의도된 편집의 결과라는 시각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편제 문장이 그다ż 짧지 않은 것도 편집 순서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주석서와 비교했을 때 『논어집주』의 편제는 무엇보다 짧고 간결함이 특징이다.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경우에는 각 편이 몇 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는지 분장의 숫자만 보이고 있다. 기존 주석서와는 달리, 이것은 주자가 『논어』 편집 체제의 일관성에 집착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작게는 각 편을 관통하는 일관된 주지를 설정하거나 크게는 『논어』 체제의 전체적 일관성을 의식적으로 전제하려 하지 않아서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논어집주』 「학이」 편제 문장은 그 자체로 예사롭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이 『논어집주』 나머지 19편에서 해당 편의 핵심 요지를 이처럼 정리한 경우를 달리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도 “多務本之意”에서처럼 “多” 즉 모두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다고 한정하면서까지 말이다. 「학이」 편의 핵심 내용은 근본에 힘써야 한다는 데 있지만, 이것이 『논어』 전체의 내용적 일관성은 아닌 것이다. 다만 ‘근본’이라는 관점에서 「학이」 편을 잘 읽는다면, 다양하고 비체계적인 체제와 내용으로 이루어진 『논어』를 충분히 소화할 만한 힘을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 따라서 주자의 「학이」 편제 문장은 체제와 주제의 일관성에 집착하지 않되 다소 분산적으로 보이는 『논어』 각 편장에 작용하는 원심력을 구심화하는 지침에 가깝겠다.

주자의 「학이」 편제 문장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이」 편에 대한 주자의 기본 인식이 언제쯤 형성되었는지 또 『논어집주』가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되어 갔는지 더듬어 보도록 하자. 이 과정에서 추후 『논어집주』 본문의 본격적 검토와 관련하여 두루 원용할 주자 문헌 자료를 확인하고, 아울러 방대하고도 복잡한 자료들을 정리하는 방식도 환기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널리 알려진 바 『논어』를 향한 주자의 연찬은 어린 시절부터 지속되었다. 1163년 『論語要義』와 『論語訓蒙口義』의 저술이 그 초기 결실이었다. 이어 1172년에 그동안 수정해온 『논어요의』와 『孟子集解』를 합쳐서 『論孟精義』로 建陽에서 간행하고 1174년에 다시 婺州에서 간행하였다. 『논맹정의』는 주로 程子和 그 학문을 계승한 북송 학자들의 주석을 모아 편집한 책으로서, 1180년 주자는 다른 주석들을 더 보충하여 『논어요의』라는 이름으로 豫章郡에서 재출간한다. 주자는 이렇듯 선배 학자들의 작업을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으로 자신의 입론을 차츰 정리해 나갔고, 1177년에 드디어 『論孟集註』와 『論孟或問』의 초고를 완성한다.

이후 주자 사서학이 성숙되어가는 한편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며 1182년 『논어집주』가 婺州에서 간행되기에 이른다.⁹⁾ 이에 그치지 않고 주자는 1185~1186년과 1188년에 걸쳐 『논어집주』를 포함하여 四書의 주석을 거듭 수정해 나갔고, 1192년에 이른바 南康本으로 알려진 『四書章句集注』를 간행하였다. 여기에 다시 적잖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 서거 1년 전인 1199년에 최종 정본이라 할 수 있는 『사서장구집주』(建陽本)를 간행한다. 이로 볼 때 주자의 『논어집주』는 거의 평생에 걸친 탐구의 소산일 뿐만 아니라 많은 수정과 변화를 겪은 결과물이다. 따라서 현전하는 『논어집

9) 1182년에 간행된 『논어집주』의 실체에 대해서는 현재 약간의 논란이 있다. 東景南의 『朱子大傳』에 따르면, 주자는 1182년 본인의 뜻으로 『四書章句集注』(寶婺本)를 婺州에서 간행하였고, 4년 후인 1186년에 그동안의 수정 사항을 담아 詹儀之와 趙汝愚를 통해 靜江과 成都에서 『四書章句集注』를 각각 간행하였다. 이러한 東景南의 입론에 근거해서, 주자 생존 당시 『四書章句集注』의 간행이 네 차례 진행되었다고 추정한 후속 연구도 이루어졌다(東景南, 『朱子大傳』, 福州: 福建教育出版社, 1992, 766~772면; 東景南, 김태완 역, 『주자평전』 下, 역사비평사, 2015, 395~405면; 徐德明, 「『四書章句集注』版本考略」, 『華東師範大學學報』, 1998년 第4期, 71~72면). 이에 대해, 寶婺本是 『大學』과 『中庸』만을 합친 책일뿐더러 주자가 간행을 원한 것도 아니며, 詹儀之의 靜江本은 『四書章句集注』의 번각본이 아니라 『논어집주』와 『맹자집주』의 합간본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王傳龍, 「朱熹《論語集注》手稿的塗抹與成書過程」, 『廈門大學學報』, 2017년 第5期, 76~77면 참조.

주』의 내용들 또한 시차를 달리 하는 다양한 시각이 중층적으로 녹아든 복합체일 수밖에 없다.¹⁰⁾

단적으로 위에서 인용한 「학이」편제의 경우 주자 일생에서 언제쯤부터 정리된 견해인지 또 『논어집주』 저술 초고 속에 언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현재 주자 자신의 수정과 개고의 흔적을 담은 「子罕」편과 「顔淵」편의 수고가 일부 전해지고 있을 뿐이라서 『논어집주』의 개고 과정 전모를 추적할 수는 없다¹¹⁾. 그렇지만 『논어집주』·『논어혹문』·『주자어류』·『주문공문집』의 편지 자료 등 관련 문헌을 두루 견주어 살핀다면 부분적이거나 어느 정도의 확인은 가능하리라고 기대한다.

『논어정의』를 바탕으로 『논어혹문』을 저술하면서 『논어집주』를 완성한 시점은 1177년 즉 주자 나이 48세 때이다.¹²⁾ 그리고 제자들과의 문답을 담고 있는 『주자어류』의 기록들은 주로 60대 이후의 시각을 보여준다. 즉 대부분 남강본과 건양본 『사서장구집주』 간행 전후의 시점에 해당한다. 물론 이 두 시기는 주자 사서학의 체계 확립에 관건이 되는 시기이지만, 그 변모 양상을 좀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는 문집에 수록된 편지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 18세기 조선의 학자인 김창협과 어유봉이 주자 문집에 수록된 편지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뽑아 정리한 『論語詳說』이 있어 크게 도움이 된다.¹³⁾ 「학이」편 제 1장과 관련된 편지들이 『논어상설』에 수록된 양상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10) 錢穆, 『朱子新學案』(第4冊), 台北: 三民書局, 1980, 180~229면; 周元俠, 『朱熹的《論語集注》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2, 80~89면; 이영호, 『동아시아의 논어학』,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9, 69~89면.
 - 11) 송대의 『논어집주』 간행 상황에 대해서는, 徐德明, 「《四書章句集注》版本考略」, 72~73면; 朱天助, 「朱子四書類著述二十一種版本述考」, 『閩江學院學報』, 2014年 第1期, 7~8면; 殷漱玉, 「朱熹《論語集注》文獻研究」, 南京師範大學 碩士論文, 2017, 7~10면; 王傳龍, 「朱熹《論語集注》手稿的塗抹與成書過程」, 76~77면 참조. 그리고 현전하는 주자의 手稿와 관련해서는, 顧音海, 「朱熹《論語集注》殘稿的幾個問題」, 『上海魯迅研究』 2014年第 4期; 王傳龍, 「朱熹《論語集注》手稿的塗抹與成書過程」 등을 통해 개략적 상황을 엿볼 수 있다.
 - 12) 王懋竑, 『朱熹年譜』, 北京: 中華書局, 1998, 76~79면; 東景南, 『朱熹年譜長編』,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1, 585~558면.
 - 13) 『論語詳說』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에 소장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미국 하버드대학 옌칭도서관(Harvard-Yenching Library) 소장본(청구기호: TK 935-2940) 4冊을 근거로 한다.

〈표 2〉『論語詳說』소재 ‘學而時習之’장 관련 주자 편지들¹⁴⁾

순번	시작 구절	편지 제목	문집 권수	연도(나이)	편년 근거
1	此篇名也	答張敬夫問目	권 32	1170(41)	陳73
2	程子曰時復紬繹	與張敬夫論癸巳論語說	권 31	1177(48)	陳153
3	說油然而慊也	上同	上同	上同	上同
4	語解云	答張敬夫語解	권 31	1173(44)	陳104
5	南軒語解首章	答石子重(八)	권 42	1177(48)	顧2405
6	時習之義	答呂子約(四)	권 47	1173(44)	陳115
7	時復紬繹之義	答呂子約(十二)	권 47	1174(45)	陳131
8	學卽行也	上同	上同	上同	上同
9	說樂之分如何	上同	上同	上同	上同
10	謝氏時習朋來	上同	上同	上同	上同
11	學之爲言	答呂子約(四十三)	권 48	1198(69)	陳469
12	學而首章甚善	答虞士朋	권 45	1186(57)	顧3101~2
13	所問論語首章	答池從周	권 62	1192(63)	顧525
14	有朋自遠方來	答范伯崇(六)	권 39	1168(39)	陳52
15	學固以至聖爲極	答陳明仲	권 43	1168(39)	顧252
16	學習之習與傳習之習	答曾無疑(四)	권 60	1195(66)	陳399
17	時習三省	答何叔京(二十二)	권 40	1170(41)	陳76

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 편지에는 30대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주자의 면모가 다양하게 담겨져 있다. 이들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자료가 1번의 편지이다.

14) 관련 내용은 『論語詳說』 1, 1~14면에 수록되어 있다. 편지 제목 옆의 숫자는, 동일 제목으로 문집에 수록된 편지들 중에서 수록된 순서를 확인해서 필자가 첨가한 것이다. ‘편년 근거’는 陳來, 『增訂本 朱子書信編年考證』, 北京:三聯書店, 2007을 기준으로 하되 이 책에서 확정하지 못한 편지에 대해서는 顧宏義, 『朱熹師友門人往還書札彙編』 1~6,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18을 참조하여 보충하였다. 姓+숫자로 책의 해당 페이지 숫자를 표기한다.

學而

“學而”는 이 편의 이름이니, 편의 머리 두 글자를 취하여 구별로 삼은 것으로 애초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시다만, 다만 學의 뜻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먼저 강구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 그것(배워 성인이 되는 것-인용자)의 정수가 모두 이 책에 들어 있으며 이 편이 밝힌 것 또한 배움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배우는 자가 마음을 다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¹⁵⁾

1170년의 기록으로 주자 나이 마흔 무렵에 해당한다. 「학이」편명에 대한 언급을 담고 있다. 편지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대목은 張栻의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다. 「학이」편명이 임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그렇지만 「학이」편명이 “學”이라는 첫 글자를 담고 있는 데다가 「학이」편에 일관되게 흐르는 주지가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¹⁶⁾ 그 핵심이란 밑줄 친 “배움의 근본”이다.

1177년 무렵 완성된 『논어후문』에는 『논어집주』에 적힌 「학이」편 제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스물 여덟 글자의 「학이」편 제사 문장은 50대 이후에 삽입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고는 해도 「학이」편 제사에 담긴 기본 인식은 40대 이전부터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고 하겠다.

이제 『논어』를 읽음에 「학이」 한 편을 숙독해서 이 한 편을 밝게 알 수 있다면 그 나머지는 저절로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¹⁷⁾

이것은 『주자어류』에 수록된 오수창의 기록으로 1186년에 기록된 것이다. 「학이」편의 핵심 주지가 『논어』전체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50대 후반에 접어든 주자에게서 여전히 「학이」편의 기본 이해가 지속되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반면에 주자 문집의 편지들이나 약 60조목에 달하는 『주자어류』의 관련 기록

15) 『주문공문집』 卷32 「答張敬夫問目」, 1396면. “學而: 此篇名也, 取篇首兩字爲別, 初無意義. 但學之爲義, 則讀此書者, 不可以不先講也. …… 其精純盡在此書, 而此篇所明又學之本. 故學者不可以不盡心焉.” 이하 주자 문헌의 인용은 『朱子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에 수록된 해당 문헌을 근거로 하고, 활용의 편의를 감안하여 면수 표시도 이 책을 따른다.

16) 편지의 주된 내용은 學의 개념 설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한다.

17) 『주자어류』, 668면. “今讀論語, 且熟讀學而一篇, 若明得一篇, 其餘自然易曉.”

속에서 「학이」편제 문장을 직접적으로 환기하는 구절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편제가 씌어진 시점을 추정하기란 힘들지만, 직접적인 언급이 드문 가운데서도 아래의 두 구절만은 예외적이다.

①이 장(‘학이시습지’장)은 초학자들이 ‘도에 들어가는 문’을 말씀한 것이지 꼭 심오한 방식으로 대단한 말씀을 한 것은 아닙니다.

此章，是說初學入道之門，未須大段說得玄妙也

② ‘도에 들어가는 문’이란 자기 자신이 도리 속으로 들어가 차츰차츰 서로 가까워져서 오래되면 자신과 도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인데, 요즘 사람은 도리는 여기에 있고 자기 자신은 바깥에 있어 전혀 관여하지 않지요.(심한)

入道之門，是將自家身己入那道理中去，漸漸相親，久之與己爲一。而今人道理在這裏，自家身在外面，全不曾相干涉。 僩¹⁸⁾

앞의 인용문 ①은 <표 1>의 11번 편지이다. 1198년에 씌어졌다. ‘학이시습지’장의 구절을 풀이하면서 언급한 내용이다. 그 아래 인용문 ②는 『주자어류』의 한 조목으로 沈僩의 기록이다. 흥미롭게도 역시 1198년의 기록이다. 두 자료의 작성 시기가 거의 일치하는 것이 우연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둘 다 “入道之門”이라는 구절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다.¹⁹⁾

1198년 무렵은 주자가 『논어집주』의 만년 정본인 건양본 원고 수정에 매진하고 있던 시기임을 감안할 때, 28자 편제 문장은 거의 주자 만년에 최종적으로 씌어진 것으로 보인다. 혹은 시기를 넓힌다 하더라도 남강본 초고 작성에 힘을 쓰던 50대 후반 이후의 일일 듯하다. 이때를 전후하여 저 유명한 『대학장구』와 『중용장구』의 서문이 완성되는 등(1189년) 주자의 사서학과 현전의 『사서집주』 체제가 완비에 이르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기는 하지만 주자의 서신이나 강학 기록에 해당 구절이 등장하는 사례가 전혀 보이지 않다가 만년 정본을 준비하던 서거 직전 시기에 관련 언급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보자면, 아무래도 60대 후반 이후로 보는 것이 더

18) 『주문공문집』 卷48 「答呂子約」, 2230면; 『주자어류』, 668면.

19) ②는 동일한 기록이 『주자어류』 세 곳에서 보이는데, 각각 「學」(288면), 「論語」(668면), 「朱子」(3813면) 항목에 나온다.

타당할 듯하다.²⁰⁾

물론 28글자 편제 문장의 작성 시점이 그것 자체로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제사를 기준으로 보자면 현전하는 『논어집주』의 체례가 완비되는 것이기도 해서 세부적인 주석 내용의 수정과는 비중이 다르다. 더군다나 나머지 19편에는 「학이」편 만큼 간명하게 정련된 편제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논어집주』이전의 『논어』주석서 체례와 견주어 볼 때 그 의의가 분명해 진다.

學으로 첫편을 삼은 것은 사람은 반드시 배워야 함을 밝힌 것이다.

‘論語’는 이 책의 전체 이름이고 ‘學而第一篇’은 별도의 제목이다. …… ‘學而’를 맨 처음으로 한 것은 성인 이하 모든 사람이 반드시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예기』 「學記」에 “옥을 조각하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고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사람은 반드시 배우고 나서야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논어정의』: 이 편에서부터 「堯曰」편까지는 『魯論語』20편의 이름과 차례이다. …… (이 편의 내용은-인용자) 모두 사람의 행할 바 중에서 큰 것이므로 여러 편의 처음으로 삼은 것이다. 이미 學으로 첫 장으로 삼은 데다가 드디어 편의 명칭으로 했으니, 사람은 모름지기 배워야 함을 말한 것이다. …… 第는 순서이고 一은 숫자의 처음이니 이 편이 순서상 처음에 해당함을 말한 것이다.²¹⁾

20) 특히 ②의 내용이 포함된 「朱子」항목에서는, 한유와 유종원 등 문장가의 독서법과 대비하면서 경서의 독서법을 강조하는 전후 맥락이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주자가 만년에 한유의 문장을 정리하는 데에 매진하여 『韓文考異』(1197)라는 저술을 남겼음을 고려한다면, 편제 문장이 이 무렵에 씌어졌을 가능성은 더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王懋竑, 『朱熹年譜』, 262면; 東景南, 김태완 역, 『주자평전』 下, 818-823면 참조.

21) 陸德明, 『經典釋文』 卷24, 1b, “以學爲首者, 明人必須學也.”; 皇侃, 『論語集解義疏』 卷一, 1a, “論語是此書總名, 學而爲第一篇別目. …… 以學而最先者, 言降聖以下皆須學成. 故學記云: 玉不琢, 不成器, 人不學, 不知道. 是明人必須學乃成也.”; 邢昺, 『論語注疏』 卷一, 1a, “正義曰: 自此至堯曰, 是魯論語二十篇之名及第次也. …… 皆人行之大者, 故爲諸篇之先. 既以學爲章首, 遂以名篇, 言人必須學也. …… 第, 順次也, 一, 數之始也, 言此篇於次當一也.”; 黃懷信, 『論語彙校集釋』 1, 16~17면.

陸德明의『經典釋文』과 皇侃의『論語義疏』, 邢昺의『論語注疏』에서 「학이」편을 설명한 대목이다. 『경전석문』의 구절이 황간의『논어의소』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형병도 그 연장선에서 설명하고 있다. 『논어』의 처음이 學에서 시작되므로 배움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학이」편의 기본 취지를 간주린 주자의 서술은 논어 주석사의 맥락에서는 자연스럽다. 후술하겠지만 주자 또한 「학이」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었기에 기존의 주석 체제를 계승하는 방식을 보여준 듯하다.

이처럼 「학이」편의 편제는 한편으로 『논어집주』 이전의 『논어』 주석서의 체계를 계승하고 기본 이해의 결을 같이 한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논어』 「학이」편의 배움이란 근본에 힘쓰는 것이라는 명확한 해석적 입장을 간명하게 천명한다. 달리 말해 근본을 배운다는 것은 「학이」편의 주지이면서 동시에 『논어』의 나머지 19편을 익힐 때에도 늘 함께 떠올리며 동반해야 하는 기저부에 다름 아니라는 뜻이다.

Ⅲ. 제1절 ‘學而時習之, 不亦說乎’의 주석 읽기

㉑ 먼저 위 구절을 풀이한 『논어집주』의 해당 대목 전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배운다는 말은 본받는다는 뜻이다. 사람의 본성은 모두 옳하나 깨달음에는 먼저 하고 뒤에 함이 있으니, 뒤에 깨닫는 자는 반드시 먼저 깨달은 자의 하는 바를 본받아야 옳을 밝게 알아서 그 本初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짧은 새가 자주 나는 것이니, 배우기를 그치지 않음을 새가 자주 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다. 說은 기뻐하는 뜻이다. 이미 배우고 또 때때로 익힌다면 배운 것이 익숙해져서 중심에 희열을 느껴 그 진전이 자연히 그칠 수 없는 것이다.

程子(伊川)가 말씀하였다. “짧은 거듭함이니 때로 다시 생각하고 풀어내서 가슴속에 흡족하게 하면 기뻐지는 것이다.” 또 말씀하였다. “배우는 것은 장차 그것을 행하려고 해서이니, 때로 익힌다면 배운 것이 내 몸에 있다. 그러므로 기뻐지는 것이다.” 謝氏가 말하였다. “時習이란 때마다 익히지 않음이 없는 것이니, 앗음에 시동과 같이 함은 앗아 있을 때의 익힘이요, 서 있음에 재계함과 같이 함은 서 있을 때의 익힘이다.”²²⁾

【學之爲言，效也。人性皆善，而覺有先後，後覺者必效先覺之所爲，乃可以明善而復其初也。絜，鳥數飛也，學之不已，如鳥數飛也。說，喜意也，既學而又時時習之，則所學者熟而中心喜說，其進自不能已矣。】程子曰習，重習也，時復思繹，浹洽於中，則說也。又曰學者，將以行之也，時習之，則所學者在我，故悅。謝氏日時習者，無時而不習，坐如尸，坐時習也，立如齊，立時習也。

인용문 아래 쪽 원문에서 【】로 표시한 부분이 해당 경문에 대한 주자의 주해이다. ‘學·習·說’ 세 글자의 뜻 풀이와 해당 구절의 해설로 이루어져 있다. 맨 처음은 學의 글자 뜻 풀이에 시작한다. 이어서 그런 훈고의 기저에 있는 學의 개념 즉 “사람의 본성은 모두 善하나 (...)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구절을 추가적으로 서술한 다음에, 다시 배우고 익힘이 ‘기쁨’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먼저, 學=效라는 훈고부터 살펴보자. 주자 이전 學의 개념은 주로 ‘읽기[誦讀]’와 ‘깨닫기[覺]’로 풀이되곤 하였다. 何晏이 『論語集解』에서 인용한 王肅의 주석 “외위 익히기를 때에 따라 하면 배움이 중지됨이 없다(誦習以時，學無廢業)”²³⁾, 그리고 皇侃의 『論語義疏』에서 보이는 『白虎通』「辟雍」의 “배운다는 것은 깨닫는 것이니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다(學者，覺也，覺悟所未知也)”가 각각 대표적인 예시이다.²⁴⁾ 따라서 ‘본받는다’는 주자의 훈고는 다소 이례적이다.

물론 주자 이전에 ‘學=效’라고 풀이한 유사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나라 伏勝의 저술로 칭해지는 『尙書大傳』과 張揖의 『廣雅』「釋詁」에 이미 보인다.²⁵⁾ 그렇

22) 성백효, 앞의 책, 28면.

23) 엄밀히 말하면 이 구절은 學이 아니라 習을 설명하는 데에 가깝다. 다만 전후 맥락상 學에 읽기와 외우기의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겠다.

24) 程樹德, 『論語集釋』 1, 北京: 中華書局, 1990, 1~5면; 黃懷信, 『論語彙校集釋』 1, 18~22면; 高尚渠, 『論語岐解輯錄』 上, 北京: 中華書局, 2011, 1~2면에 관련 주석들이 모여져 있다. 참고로 『說文解字』 권4 「敎部」의 “敎, 覺悟也。从敎从門”에도 “敎, 覺悟”라고 되어 있다(劉寶楠, 『論語正義』 上, 北京: 中華書局, 1990, 2면). 學의 개념을 둘러싼 논란은 『論語』 주석사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논어집주』의 형성 과정을 다루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자세히 다루지는 않기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황준걸, 이영호 역주, 『일본 논어 해석학』, 성균관대 출판부, 2011, 262~331면; 周元俠, 「《论语集注》中“学”字释义解析」, 『福建论坛』, 2013年 第11期; 임현규, 「논어에서 學의 의미」, 『東方學』 33, 2015; 강영순 외, 「『논어』의 ‘學’ 개념 연구와 교육적 시사점 고찰」, 『유교사상 문화연구』 79, 2020 등 참조.

25) 『尙書大傳』(四部叢刊初編) 권4 「洛誥」, 11a. “書曰：乃女其悉自學功。悉，盡也。學，效也”；張揖，

기는 하지만 『논어』주석에 원용된 경우가 드물어 주자와 이들 사이에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설정하기는 어렵다. 북송 학자들의 학문을 계승하는 주자의 위상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그런데 學=效라고 풀이하지 않더라도, 學의 훈고 사례가 『논어정의』의 북송 학자들에게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주자가 존송하는 程頤는 翊의 설명으로부터 시작하고 있고, 范祖禹도 “學先王之道”라고 하여 배움의 대상을 ‘선왕의 도’로 규정하는 데서 翊을 시작한다. 즉 學에 대해 따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翊의 함의를 풀이하는 謝良佐와 배움의 목적을 거론하는 游酢에게서도 學의 함의에 대한 천착은 보이지 않는다. 오직 楊時만이 「안연」편의 구절을 통해 “그 조목을 여쭙습니다(請問其目)”의 學을 “이 말씀을 일삼고자 합니다(請事斯語)”의 翊과 대비하는 정도이다.²⁶⁾ 이처럼 程子 계열의 북송 학자들은 學을 ‘배운다’는 사전적 의미 이상으로 심각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따라서 學의 글자 뜻 자체를 문제 삼았던 주자의 경우란 꽤나 예외적으로 보인다.

〈표 3〉 ‘學’ 풀이 관련 주자 문헌 자료들²⁷⁾

순번	관련 구절	제목	연도	수록 문헌 ²⁸⁾
1	夫學也者, 以字義言之~	答張敬夫問目	1170	『朱文公文集』(1396면)
2	學之爲言, 效也.	與張敬夫論癸巳論語說	1177	『朱文公文集』(1357면)
3	學之爲效, 何也?	或問 제1조목	1177	『論語或問』(607면)
4	學而首章甚善. 但學之一字~	答虞士朋	1186	『朱文公文集』(2058면)

『廣雅』(欽定四庫全書) 권3 「釋詁」, 7b. “爻象放視教學效也”에 이미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大槻信良, 『朱子四書集註典據攷』, 臺灣學生書局, 1976, 3면 참조. 원문 자료 인용은 ‘國學大師’(<https://guoxuedashi.com>)와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https://ctext.org>) 등을 통해 열람 가능한 영인 자료들이다.

26) 『논어정의』, 25~26면. “范曰: 學先王之道, 將以行之也. 學而習之, 知所以修身, 知所以治人, 則說矣.”; “謝曰: “學而時習者, 無時而不習, 坐如尸則坐時習也, 立如齊則立時習也, 造次必於是則造次時習也, 顛沛必於是則顛沛時習也. 如此則德聚矣, 能無說乎?”; “游曰 …… 學而時習之, 則心之所同然者得矣, 此其所以說也.”; “楊曰: 顏淵請問其目, 學也, 請事斯語則習矣, 學而不習, 徒學也.”

27) 주자 문집 소개 편지 자료는, 『論語詳說』 수록 자료에 의거했다. 문집 자료의 연도 표시는 陳來, 『增訂本 朱子書信編年考證』; 顧宏義, 『朱熹師友門人往還書札彙編』을 근거로 하였고, 『朱子語類』 자료의 연대 표시는, 黎靖德, 『朱子語類』, 北京: 中華書局, 1986, 13~20면의 ‘朱子語錄姓氏’ 기록을 따랐다.

28) 『朱子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에 수록된 해당 문헌을 근거로 한다.

5	注云學之為言, 效也	楊驤 기록	1189, 1194	『朱子語類』(669면)
6	未知未能而求知求能之謂學~	黃義剛 기록	1193 이후	『朱子語類』(670면)

위의 표는 學의 훈고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주자 문헌 자료들을 간추린 것이다. 표의 순번은 관련 자료를 필자가 연도순으로 다시 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는 1170~1193년 무렵 즉 주자 나이 40~60대에 걸쳐 있는 기록들이다. 표에서 곧장 확인되듯이 2·3·5번 자료에는 學=效라는 훈고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고, 나머지 1·4·6에서도 學의 개념을 풀이하고 있다. 특히 3번을 통해 『논어혹문』과 거의 동시에 완성된 『논어집주』초고에 이미 學=效라는 훈고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누군가 물었다. “學이 본받는다든 뜻이란 무엇입니까?” 답했다. “이른바 學이란 다른 사람에게 본받을 바가 있어 나에게 갖추어지길 구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니, 내가 아직 몰라 아는 이를 본받아 그 앎을 구하고 내가 아직 능하지 못해 능히 하는 이를 본받아 그 능함을 구하는 것이 모두 學의 일이다.”

或問: “學之爲效, 何也.” 曰: “所謂學者, 有所效於彼而求其成於我之謂也. 以己之未知, 而效夫知者, 以求其_知; 以己之未能, 而效夫能者, 以求其_能, 皆學之事也.”

3번 『논어혹문』의 글이다. 이 문장을 통해 주자가 學의 글자 뜻을 본받는다든 것으로 풀이한 이유를 엿볼 수 있다. 學=效란 彼我的 관계를 전제로 한다. 즉 다른 존재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거나 부족한 것을 나 또한 갖추려 하는 행위가 배움이란 것이다. 그 배움은 물론 본받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어서 주자는 이를 知와 能이라는 두 영역으로 구분하면서 學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글의 맥락상 知와 能은 知와 行으로 바뀌어도 된다. 이러하다면, 필시 學=본받음이라는 주자의 훈고는 知와 行 두 측면의 포괄 가능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²⁹⁾

29) 知와 行은 일반론적 범주인 반면에, 知와 能은 배움을 통하여 획득되는 능력의 신장을 더 잘 드러내는 말이다. 특히 能은 배움을 통해 할 수 없던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상태로 이행한다는 뜻을 담는다. 반면에 行이란 용어는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함이나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음을 구분하는 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 달리 말해, 설령 일반적 범주로서는 能과 行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能이 훨씬 學의 의미와 근접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知와 能은 주자가 學의 함의에

1: 學이라는 것은 글자 뜻으로 말하자면 내가 알지 못하고 능하지 못하여 저 알고 능함을 본받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夫學也者，以字義言之，則己之未知未能而效夫知之能之謂也。

2: 學의 뜻은 본받는다는 것이니, 내가 아직 모르는 바가 있어 저 아는 이를 본받아 그 앎을 구하고 내가 아직 능하지 못한 바가 있어 저 능히 하는 이를 본받아 그 능함을 구하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學之爲言，效也。以己有所未知，而效夫知者，以求其知，以己有所未能而效夫能者，以求其能之謂也。

각각 표의 1과 2의 글로서 둘 다 張栻에게 답하는 편지의 일부이다. 1은 『논어혹문』보다 훨씬 이전인 1170년에 씌어졌고 2는 『논어혹문』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씌어졌다. 1의 인용 글을 통해 學의 뜻을 效로 풀이하는 방식과 學의 영역을 知와 能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모두 주자 나이 40세 이전부터 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에서처럼 『논어집주』초고의 완성을 전후하여 확립된 “學之爲言，效也”라는 훈고 형식은, 5에서도 반복되면서 이후로 지속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學=效라는 글자 풀이는 반드시 知와 能(혹은 知와 行)이라는 배움의 두 영역과 결부되어 나타난다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된다.³⁰⁾

4: 「학이」편 첫 장은 참 좋습니다. 다만 學이라는 한 글자는 致知와 力行을 함께 아울러서 말한 것이니 치우쳐 거론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인용하신 안연의 공부는 바로 오로지 力行的 일일 따름입니다.

學而首章甚善。但學之一字，實兼致知力行而言，不可偏舉。今所引顏子功夫，乃專爲力行事耳。

훨씬 경사됨으로써 나타난 지행론의 변형으로 이해된다. 더군다나 ‘知·能’의 學과의 근친성은, 『논어』「子張」편의 “子夏曰：日知其所亡，月無忘其所能，可謂好學也已矣”；『맹자』「盡心上」“人之所不學而能者，其良能也，所不慮而知者，其良知也” 등과 같은 구절에서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겠다.

30) 2에서는 장식이 學의 뜻을 깊이 헤아리지 않은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을 담고 있기도 하였다. “이제 풀이하신 바를 자세히 살펴보면, ‘學而’ 두 글자에 대해서는 전혀 따져보지 않고 다만 ‘의리의 단서를 풀어내다’고만 하면서 ‘時習’의 뜻을 풀이하셨습니다. 사람이 배우지 않는다면 장차 어떻게 의리가 있는 곳을 알아 그 단서를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今詳所解，於學而兩字，全然闕略而但言紬繹義理以解時習之意。夫人不知學，其將何以知義理之所在而紬繹之乎?)

5: 여쭙습니다. “『집주』에서 ‘學의 뜻은 본받는다’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본받는다’는 것은 아우르는 바가 무척 넓습니다.” 답하셨다. “이와 같습니다. 널리 배우며, 자세히 물으며, 신중히 생각하며, 밝게 분별하며, 독실히 행해야 한다는 것 등은 모두 배워서 본받는 일입니다.” (楊驥)

問: ‘注云學之為言, 效也. 效字所包甚廣.’ 曰: ‘是如此. 博學, 審問, 慎思, 明辨, 篤行, 皆學效之事也.’ (驥)

인용문 4에서는 學이 知와 行을 겸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5에서는 본받음 즉 學의 영역이 知와 行을 포괄한다는 것을 『중용』의 구절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博學과 審問은 知에 해당하고 나머지 셋은 行에 해당한다. 요컨대 주자의 學=效라는 훈고 이면에는 學이 知와 行을 아우르는 개념이라는 시각이 작용하고 있다. 주자 이전의 주석서에서처럼 學이라는 글자를 ‘송독’이나 ‘깨닫기[覺]’로 설정하면, 그때의 배움은 知와 行을 포괄할 만한 균형을 갖추지 못하고 知 편향으로 기울어지기 쉽다. 주자가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소 예외적인 훈고를 일찍부터 견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② 다음은, 知와 行의 두 영역을 포괄하고자 하는 學의 훈고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다.

사람의 본성은 모두 善하나 깨달음에는 먼저 하고 뒤에 함이 있으니, 뒤에 깨닫는 자는 반드시 먼저 깨달은 자의 하는 바를 본받아야 善을 밝게 알아서 그 本初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人性皆善, 而覺有先後, 後覺者必效先覺之所爲, 乃可以明善而復其初也.

學의 훈고 연장선이므로 원문의 效는 당연한 글자이다. 그리고 “明(善)”과 “復(其初)”은 각각 知와 行에 해당한다. 기실 學의 훈고가 이 문장을 위해서 요청된 것이나 다름없겠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규정(性善), 배움의 주체(後覺者)와 배움의 대상(先覺之所爲), 배움의 방법(效), 그리고 ‘明善復初’라는 배움의 목적까지 이 간결한 문장에 두루 내포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간결하지만 빛나는 문장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러한 풀이 방식은 『논어집주』에만 보인다.

이 구절을 직접적으로 환기할 만한 언급이 『논어혹문』에는 물론이고 제자들과의 문답인 『주자어류』에도 전혀 거론되지 않는다. 문집의 편지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이 문장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이처럼 달리 거론된 경우가 없다는 사실은 다소 의아하기까지 하다. 『논어집주』 및 『사서장구집주』가 마지막 순간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아마 주자 만년에 새로이 첨가한 구절로 이해함직하다. 그렇다면 어떤 필요를 느껴 이 구절을 보충한 것일까. 혹은 이 구절이 첨가됨으로써 어떤 의미가 구체화되는가. 직접적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처지이므로, 學의 훈고를 살핀 맥락의 연장선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한다.

첫째, 위 인용문을 통해서 效와 覺 즉 본받음과 깨달음이 인접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 문제적인 글자는 覺이다. 效를 先覺-後覺의 관계 문제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로 볼 때 ‘본받음’이라는 풀이로는 覺의 함의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學과 覺이 개념적으로 인접 관계임을 뚜렷이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게 구절 보충의 첫 번째 이유이다. 知와 行 중에서 學이 연상시키는 바가 知에 가까운 것 또한 엄연하다. 그렇지만 반대로 보자면, 學이 覺의 의미와 동일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覺이 學을 대체한 것은 아니므로, 學은 여전히 覺을 내포한 效이다.

둘째, 배움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효과가 있다. 覺이 배우는 자의 내적 현상이라면 效는 본받음의 대상을 환기하게 마련이다. 즉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先覺-後覺]를 전제로 한다. 아울러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깨달은 이가 한 바(先覺之所爲)”라고 함으로써 배움의 대상을 분명히 한다. 이에 따라 특정한 것만이 배움의 대상으로 규정된다.³¹⁾ 이것은 效라는 글자에 원래 함축되어 있는 의미이거니와, 여기

31) 여기서 “先覺之所爲”의 “爲” 해석을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통상적으로 爲를 ‘하다’(行)로 읽을 수도 있고 ‘배우다’(學)로 읽을 수 있어서이다. 雲峯胡氏(胡炳文)이 『四書通』(胡炳文, 『四書通』(四庫全書本)「論語」권1, 2a)에서 ‘배우다’로 읽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이래로 ‘배우다’로 풀이하는 쪽이 꽤 설득력이 높아졌다.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 논의는 다른 자리에서 다루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배우다’로 풀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무엇보다 學으로 한정하면 爲에는 후술할 翫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覺이 비록 知에 훨씬 근접하지만 覺에 이르는 데에는 知와 行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차라리 爲를 ‘하다’라고 풀더라도 그 知 또한 행위 활동의 일종이므로 廣의 行에는 知와 知에 대배되는 翫의 行이 포함될 수 있다. “先覺之所爲”에서 爲는 覺을 의식하면서 선택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爲를 學으로 한정해서는 결코

서 훨씬 명시화된다. 즉 先覺을 본받는 것이 배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두 번째 이유로 들 수 있겠다.

셋째, 翫의 비중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이다. 주자에 따르면 “明善而復其初”가 배움의 목적인바, 이 목적지와 效 사이에는 먼 거리가 있다. 이 먼 거리를 거쳐 覺에 이르기 위해서는, 배우는 자가 이 거리를 翫으로 채워야 한다. 效=學은 先覺-後覺의 관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翫은 배우는 자에게서 이루어진다. 效의 외적 先後 관계가 覺의 주체 내적 문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지고, 그렇게 덜어진 무게는 翫으로 이월된다. 學=效라는 풀이에다 先覺-後覺의 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翫의 중요성이 훨씬 더 부각된다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이유로 보인다.

넷째, 學의 구성 영역을 환기하는 효과도 있다. 學의 목적이 “明善而復其初”이라 할 때, “明善”은 知의 영역에, “復其初”는 行의 영역에 해당한다. 아무래도 學의 일상적 함의는 行보다는 知에 가깝다. 앞서 언급했듯이 學=效라는 훈고가 함축하고 있던 바, 學의 영역은 知와 行을 아우른다는 점을 환기하고자 한 것이다.³²⁾ 후술하겠지만 이 구절은 뒤에 이어지는 정자와 사랑좌의 주석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북송 학자들의 주석을 뒤에 붙인 의도와 맥락이 뚜렷해진다는 효과가 있다.

③ 이상에서 살폈듯이 주자가 學의 개념으로 서술한 문장이 다양한 의미와 효과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때, 이것은 기실 ‘先覺-後覺’과 “明善而復其初”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이 둘 중에서 후자는, 비록 그 구체적 서술 시점을 살피기는 어렵지만, 『소학』의 題辭나 『대학장구』의 서문 등에서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등장하므로 주자의 사서학 체계 속에서 그 의미를 가늠하기에 용이하다. 이에 반해 ‘선각-후각’은 그 유래와 주자의 의도를 짐작하기에 다소 난감하다. 해당 구절의 수많은 주석들에서도 주자의 이 용어 선택이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마련된 것인지 직접적으로 거론한 경우를 확인하지 못했다.

안 된다.

32) 주자 이후 宋元 시대의 주석서에서도 동일하게 풀이하고 있다. 金履祥, 『論語集注攷證』(四庫全書本) 권1, 1b; 胡炳文, 『四書通』「論語」 권1, 2a; 倪士毅, 『四書輯釋』(北京大圖書館本)「論語」 권1, 2a 등 참조.

주자 문헌 자료들의 전후 정황상 이 문장이 주자 만년에 씌어졌다는 것이 필자의 가설적 추정임은 이미 언급한 대로다. 그런데 주자의 일생에서 서거 직전의 수 년간은 道學이 僞學으로 지목되어 시련을 겪던 慶元黨禍의 시기였다. 남강의 『사서장구집주』 판목이 압수되어 태워지고 문생들도 적잖이 흩어져 도학의 계승 여부를 우려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³³⁾ 바로 이 무렵에 學의 개념을 서술한 주자의 주석 문장이 씌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

『사서집주』 전체에서 『논어집주』 「학이」의 ‘선각-후각’과 동일한 용어가 나오는 곳은 『孟子』 「萬章」 상편과 하편이다. 각각 한 차례씩 나오지만 동일한 문장이 반복된다. 그러므로 먼저 나오는 「萬章」 상편의 예를 살펴보자. 이른바 ‘伊尹以割烹要湯’ 장이다. 이윤이 탕임금에게 등용해주길 먼저 요구하였다는 제자 만장의 물음에 맹자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다. 일종의 출처론이다. 맹자에 따르면 이윤이 탕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 차례 걸친 탕임금의 요구가 있어서 이윤이 출사를 결심하게 되었다. 다음은 그 때 이윤이 한 말이라 한다.

하늘이 이 백성을 내심은 먼저 안 사람으로 하여금 늦게 아는 사람을 깨우치며,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뒤늦게 깨닫는 자를 깨우치게 하신 것이다. 나는 하늘이 낸 백성 중에 먼저 깨달은 자이니, 내 장차 이 도로써 이 백성들을 깨우쳐야 할 것이니, 내가 이들을 깨우치지 아니하고 그 누가 하겠는가.

天之生此民也，使先知覺後知，使先覺覺後覺也，予天民之先覺者也，子將以斯道覺斯民也，非予覺之而誰也?³⁴⁾

‘선각-후각’의 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 인용문의 의미 또한 『논어집주』의 주석 문장과 동일하다고 할 만하다. 다만 여기서의 “覺”은 일차적으로 배움의 차원이라기 보다는 위정자로서의 임무와 책임을 부각하는 정치의 차원에 가깝다. 이처럼 문자

33) 이 시기의 역사적 배경과 주희의 생애에 대해서는, 東景南, 김태완 역, 『주자평전』(下), 733~815면; 위잉스, 이원석 역, 『주희의 역사세계』(상), 글항아리, 2015, 450~543면.

34) 『맹자집주』를 인용할 때의 번역은 『논어집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다. 성백효, 『현토완역 맹자집주』(개정증보판), 전통문화연구회, 2013, 396면. 참고로, 「만장」 하편의 사례도 함께 보인다. “伊尹曰：何事非君，何使非民？治亦進，亂亦進。曰：天之生斯民也，使先知覺後知，使先覺覺後覺，予天民之先覺者也，子將以此道覺此民也。”

표현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많은 학자들이 남긴 주석들에서 『논어집주』의 ‘선각-후각’과 이 구절과 관련지어 설명한 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인 듯하다. 이것은 자칫 주자학의 본령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읽히기 쉽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 또한 마찬가지로 입장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사정이 달라질 듯하다.

① 마음에 똑같이 옳게 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理와 義를 이른다. 성인은 우리 마음에 똑같이 옳게 여기는 바를 먼저 아셨을 따름이니, 그러므로 理와 義가 우리 마음에 기쁨은 고기가 우리 입에 좋음과 같은 것이다.

心之所同然者何也? 謂理也義也. 聖人, 先得我心之所同然耳, 故理義之悅我心, 猶芻豢之悅我口.

② 정자가 말씀하셨다. “㉠사물에 있는 것을 理라 하고 사물에 대처하는 것을 義라 하니, 體와 用을 이른다. ㉢맹자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의 마음이 理와 義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없다. 다만 성인은 이것을 먼저 알고 먼저 깨달았을 뿐이요, 일반인보다 특이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신 것이다.” 정자가 또 말씀하셨다. ㉡“ ‘理와 義가 우리 마음에 기쁨은 고기가 우리 입에 좋음과 같다’ 하였으니 이 말씀이 친절하여 맛이 있다. 모름지기 義理가 마음에 기쁜 것이 참으로 고기가 우리 입에 좋은 것과 같음을 실제로 잘 살펴야 비로소 얻을 것이다.”

程子曰: ㉠‘在物爲理, 處物爲義, 體用之謂也. ㉢孟子言人心無不悅理義者, 但聖人則先知先覺乎此耳, 非有以異於人也.’ 程子又曰: ㉡‘理義之悅我心, 猶芻豢之悅我口, 此語親切有味. 須實體察得理義之悅心, 真猶芻豢之悅口, 始得.’

위는 『맹자집주』 「告子上」 편의 한 대목이다. ①은 경문이고 ②는 주석이다. ①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理와 義에 대해 옳다고 여기는 본성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맛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②는 정자의 말을 원용하여 구성한 주석이다. 무엇보다 ②의 ㉢에 있는 “先知先覺”에 주목할 만하다. 「만장」 편의 구절을 직접 원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자의 주석은 주자에 의해 얼마간 다듬어진 것이다.

먼저 ㉠은 본래 연결된 문장이 아니라 정이천의 “在物爲理, 處物爲義”라는 말과 정명도의 말인 “體用”을 하나로 붙여 놓은 것이다. 두 사람의 말을 하나의 주석으로

통합하였다. 이 사실은 『孟子精義』에 그 출처가 밝혀져 있어 쉽게 확인 가능하다. 반면에 “先知先覺”이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㉞만은 출처가 불확실하여 문제다. ㉠과 ㉡와는 달리 ㉞는 『맹자정의』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³⁵⁾ 여타의 주자 문헌은 물론이고 정자의 저술에서도 아직 찾지 못했다.³⁶⁾

기실 『맹자집주』의 주석 앞 부분은 마음의 본체와 작용을 설명하는 심성론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에서 주자가 정자 두 형제의 풀이를 하나로 묶은 것도 心統性情의 논리에 따라 未發과 已發을 함께 아우르기 위해서이다. 특히 “先知先覺”은 중화신설 이후 주자가 전개한 仁說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호남학파의 仁 이해 방식과 관련이 깊다. 사랑과 이래 知覺이 곧 仁이라고 해석하는 호남학파에서 자신의 논거로 이 구절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³⁷⁾ 심성론을 다루는 자리가 아니므로 주석의 맥락에 더 집중하자면, ㉞는 “聖人”과 “人”을 대비시키는 데서 드러나듯이 이 둘은 깨달음의 시간적 선후 차이가 있을 뿐 理와 義를 기뻐함은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요컨대 성인의 경지라기보다 배우는 자의 입장에서 풀이한 것이다. 배우는 과정에 있더라도 느끼는 기쁨은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의 주석이 동시적으로 씌어진 것은 아니지만 ㉞가 정자의 말임을 전제한다면, 정자의 주석을 존송하는 『사서집주』 주석의 일반적 특성을 감안할 때, ㉠과 ㉡가 정리되고서 그 훗날 어느 시점에 ㉞가 새로이 추가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35) 『맹자정의』, 777면에 실린 정자 형제의 말은 다음과 같다. 밑줄 친 부분이 『맹자집주』에서 주자가 원용하여 재정리한 구절이다. ○明道曰: ‘人心之所同者何也. 謂理也. 義也. 何謂理何謂義? 學者當深思.’ 又曰: “理義, 體用也.” ○伊川曰: “在物爲理, 處物爲義.” 又曰: “須知理義之悅我心, 猶芻豢之悅我口, 玩理以養心如此. 蓋人有小稱意之事, 猶喜悅淪肌浹骨, 有春和意, 何況義理? 然窮理亦當知用心緩急, 但勞苦而不知悅處, 豈能養心?” 참고로, ㉡의 정자(이천)의 진술 또한 주자가 사랑자의 기록(『맹자정의』, 778면)에서 발췌한 것이다.

36) 大槻信良, 『朱子四書集註典據攷』, 512면에서도 ㉠과 ㉞를 합쳐서 출전을 『맹자정의』라고 하였다.

37) “先知先覺”은 호남학파인 胡實의 논거로 제시된 구절이다. (『주문공문집』 권32 「又論仁說」, 1412면) 이른바 중화신설 이후 仁說과 知覺論 등 주자 심성론의 제 양상에 대해서는, 高畑常信, 『宋代湖南學の研究』, 東京:秋山書店, 1996, 361~388면; 陳來, 이종란 외 역, 『주희의 철학』, 예문서원, 2002, 238~259면; 임현규, 「朱子の 仁 개념」, 『철학연구』 86, 2003, 300~310면; 김우형, 『주희철학의 인식론』, 심산, 2005, 108~134면; 전병욱, 「朱子 仁說에서 ‘知覺’의 의미」, 『철학』 92, 2007, 29~54면; 손영식, 『이성과 현실』, 울산대 출판부, 2013, 336~352면; 東景南, 김태완 역, 『주자평전』 (上), 603~622면; 陳逢源, 「從「中和」到「仁說」-朱熹《四書章句集注》「愛之理, 心之德」之義理進程考察」, 『東吳中文學報』 第二十九期, 2015, 22~27면 등 참조.

㉠와 ㉡에 관련된 언급은 『맹자혹문』에서부터 보이지만 ㉢는 그렇지 않다. 60대 이후의 기록이 대부분인 『주자어류』에서도 거론되는 장면이 전혀 없다. 이에, 여전히 억측에 불과하지만, 필자는 ㉢의 “先知先覺”이 「학이」편의 ‘선각-후각’과 잘 호응한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한 시기의 산물이 아닐까 한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첫째, “先知先覺”은 교학론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 구절이 등장하는 일차적 맥락은 분명 출처론이다. 그러나 “知는 일의 당연한 바를 아는 것이요, 覺은 그 이치의 그러한 까닭을 깨닫는 것이다”³⁸⁾는 주자의 풀이를 고려할 때, 이러한 정치적 출처론은 심성론을 기저에 두면서 교학의 차원으로 전환 가능하다. 예컨대 『주자어류』에는 葉賀孫의 기록으로 『맹자』의 해당 구절을 거론한 언급이 남아 있다. 섭하손의 기록은 주자 만년에 씌어졌다.³⁹⁾ 거기서도 주자는 이윤의 말을 원용하여 출처론의 심성론적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⁴⁰⁾ 『맹자』의 이윤에게 知와 覺은 출사의 근거이지만 요순의 도를 홀로 간직하며 물려나 있게 하는 근거이기도 하며, 나아가 知와 覺의 선후 관계는 교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맹자』의 문맥에서 先知先覺과 後知後覺은 覺 즉 ‘깨우치다’는 동사로 매개되는데, 이것을 배우는 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效 즉 본받음에 해당한다.

둘째, “先知先覺”이 들어 있는 문맥이 「학이」편 경문 구절과 긴밀하게 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先知先覺”을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주체의 내적 체험에 한정해서 접근한다면, “우리 마음에 기쁨(悅我心)”과 “우리 입에 좋음(悅我口)”의 悅과 겹쳐진다. 해당 구절을 다룰 때 다시 살피겠지만, 이것은 자연스럽게 「학이」편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구절의 ‘기쁨(說=悅)’을 환기하게 된다. 앞서 보았던 『맹자집주』 주석 ㉠ 대목의 “先知先覺” 역시 ‘기쁨’을 설명하는 데서 활용되고 있다. ㉠~㉢가 심성론의 외양으로 띠고 있지만 이 ‘기쁨’을 매개로 배우고 익힘의 과정을 부각한다. 이는 결코 우연으로 보기 어렵고, 인접한 개념적 연상 혹은 심리적 이미지의 연동으로 이해하는 편이 온당하다.

38) 『맹자집주』 「만장上」 ‘伊尹以割烹要湯’ 장의 주자 주석이다. “知謂識其事之所當然, 覺謂悟其理之所以然.” 주자의 주석은 “知是知此事, 覺是覺于理”(『맹자정의』, 753면)라는 정자의 풀이에서 왔다.

39) 섭하손은 각각 1191~1193년, 1194~1195년, 1196~1198년, 1199~1200년 등 네 차례에 걸쳐 주자에게 직접 사사하였다. 田中謙二, 『朱門弟子師事年攷』(1975), 『田中謙二著作集』 3, 東京: 汲古書店, 2001, 219면; 陳榮捷, 『朱子門人』, 臺北: 臺灣學生書局, 1982, 279~280면.

40) 『주자어류』 「本朝四」, 4059면. “聖賢與衆人皆具此理, 衆人自不覺察耳.”

이러한 이유로 해서, 「학이」편 첫 장의 주석에 ‘선각-후각’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아울러 僞學의 수괴로 지목되며 겪은 주자 개인의 좌절과 도학을 향한 대대적인 탄압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었음도 가설로나마 환기해 두고자 한다.

④ 學의 풀이에 이어지는 주자의 習 풀이 즉 “새가 자주 난다[鳥數飛也]”는 『說文解字』의 것이다. 『논어후문』에 직접 언급되어 있다. 아울러 『예기』의 한 대목도 근거 사례로 들었다.⁴¹⁾ 주자의 習 풀이는 북송 시대에 程伊川이 먼저 언급하였다. 『논어정의』에 보인다.⁴²⁾ 다만 주자는 “자주(數)”라는 글자를 통해 習의 반복성이 부각되도록 강조하였다.

習의 글자 뜻풀이 다음의 구절, “배우기를 그치지 않음을 새가 자주 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다(學之不已, 如鳥數飛也)”는 『논어후문』과 『주자어류』 등에서 관련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굳이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 언급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역시 수정 과정에서 새로이 보충된 구절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그런데 배우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學之不已”는 習의 풀이로서 다소 어색하다. 習이 아니라 學의 반복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문맥상 ‘배운 바[所學]’로 이해하여 배운 것을 반복하여 익힌다는 뜻으로 새기는 것이 적절하겠다.

다음으로 “說=喜”라는 글자 풀이에 이어 경문 구절 전체를 해설한다. 그것이 “이미 배우고 또 때때로 익힌다면 배운 것이 익숙해져서 중심에 희열을 느껴 그 진전이 자연히 그칠 수 없는 것이다(既學而又時時習之, 則所學者熟而中心喜說, 其進自不能已矣)”이다. 구절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경문에는 없는 허사와 어구들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씌어졌다. “所學者熟”과 “其進自不能已矣”는 없는 것을 보충한 구절이다. ‘배운 바가 익숙해져서’ 기쁘고 그래서 ‘학문의 나아감이 절로 그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끝 구절은 주자의 최종적 판단처럼 읽힌다. 여기서 핵심어는 “不(能)已”[단절 없는 지속]이고, 이것은 習의 함의와 겹쳐진다. 『논어집주』의 주자는

41) 『논어후문』에 인용된 구절은 『禮記』 「月令」의 “늦여름의 달에는 (….) 따뜻한 바람이 비로소 불고 귀뚜라미는 벽에서 살며 (어린) 매는 나는 법을 배우고 썩은 풀은 만뎃불이 된다.(季夏之月, (….) 溫風始至, 蟋蟀居壁, 鷹乃學習, 腐草為螢)”이다.

42) 『論語精義』, 25면. “習, 如禽之習飛. 又曰: 鷹乃學習之義.”

學보다는 脣을 해석상 우위에 두고 있다고 이해하게 된다.

여기서 다시 學의 개념을 서술할 때 등장한 “先覺”의 문제를 환기하자. 先覺이 悅과 인접한 말임은 이미 언급한 대로다.

① 이른바 ‘기쁨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바로 맹자가 말한 “義理가 마음에 기쁜 것이 참으로 고기가 우리 입에 좋은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② 이는(학습의 기쁨—인용자), 가슴 속에 그득해진 기쁨의 맛이 비록 고기 가 입에 달콤함이라 하더라도 그 아름다운 맛을 나타내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⁴³⁾

①은 문집에 수록된 글로서 44세 때 여조검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고, ②는『논어혹문』에서 기쁨(悅)에 대해 설명한 대목이다. 둘 다『논어』의 첫 구절에 있는 ‘기쁨’의 해석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다. 주자의 입장은 동일하다.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기쁨은 이치와 의리를 깨달아 생겨나는 기쁨과 같다고 풀이한다. 여기서 거듭 확인되듯, 先覺이라는 용어가 學의 개념을 설명하는 자리에 등장하면서 또 인간 본성의 동일함을 설명하는 『맹자』의 주석에도 원용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쁨’이 그 둘을 매개하기 때문이다. 즉 「학이」편 주석의 ‘선각-후각’은 뒤 이어 나올 구절의 ‘悅(說)’이라는 글자를 미리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⑤ 위에서 살핀 내용으로 주자의 풀이는 일차적으로 완결되었다. 그런데 그 뒤로 북송 학자의 주석이 붙어 있다. 이것은『논어집주』의 전형적 체제이다. 이러한 형태로『논어집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자의 풀이와 다른 주석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 주자의 해석에 근거를 부여하는 주석인지, 미진한 해석을 보충하는 역할인지, 또는 주자와는 견해를 달리 하지만 역시 참조할 만한 풀이라는 뜻인지 살필 필요가 있다. 사례별로 다 나뉘는 맥락이 있으므로『논어집주』전편에 걸쳐 매 주석마다 확인이 필요하다.『논어집주』에서 인용하는 다른 학자의 주석은 거의 대부분『논어정의』에 들어 있고, 각각에 대한 주자의 논평은 주로『논어혹문』에

43) “所謂說在心，政孟子義理悅我心，猶芻豢悅我口之意。”；“是其中心油然而悅懌之味，雖芻豢之甘於口，亦不足以喻其美矣。”

서 확인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우선 『논어집주』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자. 앞서 주자가 學과 習 그리고 說의 뜻 설명과 더불어 문장의 자세한 풀이를 마친 상태이므로, 이어지는 程子(伊川)와 謝良佐의 주석 인용은 비록 ○ 圈點 표시 없이 붙어 있지만 ○ 표시 아래에 서술되는 章下註 형식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주자는 程子와 사랑좌 두 사람만을 인용하였다. 그렇지만 실제 주석은 셋이다. 앞서 제시한 바 있지만 편의를 위해 다시 해당 대목을 보인다.

程子(伊川)가 말씀하였다. “習은 거듭함이니 때로 다시 생각하고 풀어내서 가슴속에 흡족하게 하면 기뻐지는 것이다.” 또 말씀하였다. “배우는 것은 장차 그것을 행하려고 해서이니, 때로 익힌다면 배운 것이 내 몸에 있다. 그러므로 기뻐지는 것이다.” 謝氏가 말하였다. “時習이란 때마다 익히지 않음이 없는 것이니, 앞음에 시동과 같이 함은 앉아 있을 때의 익힘이요, 서 있음에 재계함과 같이 함은 서 있을 때의 익힘이다.”⁴⁴⁾

程子曰習，重習也，時復思繹，浹洽於中，則說也。又曰學者，將以行之也，時習之，則所學者在我，故悅。謝氏曰時習者，無時而不習，坐如尸，坐時習也，立如齊，立時習也。

“程子曰”과 “又曰”은 동일한 程子의 말이기 는 하지만 구분되어 있다. 그 둘은 출처가 다르기 때문이다. “又曰”은 그 사실을 표시한다. 따라서 이 둘은 분리해서 독립된 주석으로 읽을 수도 있고 붙여서 하나의 주석처럼 연속적으로 읽을 수도 있겠다. 여기서는 두 개이지만 하나의 주석처럼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 앞의 것은 “생각하고 풀어냄(思繹)”, 뒤의 것은 “행함(行之)”이 설명의 중점이므로 각각 知와 行을 의미한다. 學=效라는 훈고를 통해 知와 行을 아우르고자 한 의도가 여기서도 유효하게 작용한다.

정자의 주석을 나란히 붙여 놓은 것은, 學이 知와 行의 한쪽 측면으로만 이해되는 것 특히 ‘學=思=知’로 이해되기 쉬움을 우려한 결과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논어 흑문』 단계 이전부터 확인된다. 정자의 주석 둘 중 전자는 知의 측면에서 후자는 能의 측면에서 언급한 것으로 정자만이 이 둘을 겸하여 말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⁴⁵⁾

44) 성백효, 『현토완역 논어집주』(개정증보판), 28면.

하지만 『논어집주』의 주석 형태로 보자면 정자가 이 둘을 한곳에서 겹하여 설명하고 있는 장면을 찾기는 어려워서 각기 다른 곳에서의 발언을 오려 붙여 하나처럼 만든 것이다. 따라서 “程子曰”과 “又曰”은 구분되어 있지만 단일한 주석처럼 읽어야 한다.

정자의 두 주석을 하나의 주석으로 이해하면 앞서 보았던 學의 목적 즉 “明善而復其初”가 知와 行을 아우르는 것과 적절하게 호응한다. 시간적 선후로는 “明善而復其初”가 뒤에 씌어진 것이겠지만 『논어집주』 내적으로는 선행하는 구절이므로 주자가 學의 개념을 서술한 내용과 정자의 주석은 공명한다. 이것은 주자의 입론이 정자의 학통을 계승하는 위치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환기한다 하겠다.

주자가 정자의 주석을 원용한 것은 가설적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읽을 수 있다. 예컨대, ‘學은 知에 해당하고 習은 行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와 ‘習과 說은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가?’ 등의 물음에 답하는 내용에 가깝다. 그러므로 『논어』를 읽는 자가 던질 만한 혹은 제기해야 마땅한 질문이 『논어집주』에 내포되어 있다. 그 질문이 들리게 하는 열쇠가 『논어집주』에 등장하는 일련의 주석들이다. 그런 점에서 『논어집주』는 답변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기실 질문 모음집이기도 하다.

정자의 주석에 이어진 사랑좌의 주석은 習에 초점을 둔 풀이이다. 그런데 정자의 주석과는 달리 사랑좌의 주석에 대한 언급을 『논어혹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논어혹문』 단계에서는 사랑좌의 주석을 정자 주석 아래에 붙이지 않았다가 이후에 추가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인용된 주석의 초점이 조금 다르다. 程子の 주석은 習의 글자 뜻도 풀이하지만 그보다는 習과 說[悅]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더 치중하고 있다. 반면 사랑좌의 주석은 習에 대한 설명만 있고 說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에 따라 사랑좌의 주석이 기본적으로 정자의 주석을 보완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문면의 의미상 사랑좌는 특히 時와 習의 함의에 치중하고 있다.

『주자어류』에는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구절과 관련하여 모두 58개의 문답이 수록되어 있다. 이중 정자와 사랑좌의 주석에 대한 논의는 20번째 조목에서부터 시작되어 25번째에서 마무리된다. 기록 문인과 관련 문답이 진행되었던 시기 등을 엿볼 수 있도록 관련 항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45) 『論語或問』, 609면. “曰: ‘程子之於習, 有兩義焉, 何也?’ 曰: ‘重復思繹者, 以知者言也; 所學在我者, 以能者言也. 學之爲道, 不越乎兩端矣. 然諸說或槩舉其凡, 而不指其目, 或各指其一, 而不能相兼, 惟程子則先後兩言皆指其目, 而有相發之功焉.’”

〈표 4〉 『주자어류』소재 정자와 사랑좌 주석 관련 문답

순번	기록 문인	기록 연도	師事 연도	문답 주지
		『주자어류』 ⁴⁶⁾	田中謙二·陳榮捷 ⁴⁷⁾	
20	楊道夫	己酉(1189) 이후	1189 이후	양설의 편향성
21	徐寓	庚戌(1190) 이후	1190 이후	양설 병치의 의도
22	葉賀孫	辛亥(1191) 이후	1191, 1199	양설의 우열 비교
23	黃卓	기록 없음	1191, 1193, 1198~9	사씨 설의 知行 양 측면
24	陳淳	庚戌(1190), 己未(1199)	1190, 1199~1200	사씨 풀이의 해석
25	黃義剛	癸丑(1193) 이후	1190, 1197~9	사씨 풀이의 해석

주자의 출생년이 1130년이므로 관련 기록은 모두 주자 나이 60세 이후의 일이다. 『논어집주』의 기본 원고가 완성되고 『논어혹문』을 통해 해설이 이루어진 것은 주자 48세의 일이었다. 따라서 『주자어류』의 기록은 약 10년 이후의 상황이다. 이 10여 년 간의 어느 시점에선가 사씨의 주석이 포함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여쭙었다. “이천의 ‘첩은 거듭함이다. 때로 다시 생각하여 마음속에 무젓게 되니 기쁜 것이다’는 말은, 살피건대 다만 의리의 측면에서 말한 것입니다. 뒤에 上蔡(謝良佐)의 ‘앓을 때는 시동과 같이 한다’는 한 단락을 덧붙였는데 이는 또한 몸소 실천하는 측면에서만 말한 것이니, 그런 다음에야 時習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다. “내가 두 설을 갖춘 데서, 내 의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두 견해는 각기 한 측면만을 말하고 있으나, 의리를 사색하는 것과 생활에서 몸소 행하는 것 모두 첩에 해당한다고 해야 옳다.”⁴⁸⁾

표의 21번 문인 徐寓의 기록이다. 이를 통해 주자가 정자와 사랑좌의 주석을 함께

46) 『주자어류』, 4346~4352면.

47) 田中謙二, 『朱門弟子師事年攷』, 2001, 5~297면; 陳榮捷, 『朱子門人』, 49~365면에 의거한다. 陳榮捷은 田中謙二의 고증 내용도 다루고 있다.

48) 『주자어류』, 672면. “問: ‘程云: ‘習, 重習也. 時復思繹, 浹洽於中, 則說也.’ 看來只就義理處說. 後添入上蔡‘坐如尸’一段, 此又就躬行處說, 然後盡時習之意.’ 曰: ‘某備兩說, 某意可見. 兩段者各只說得一邊, 尋繹義理與居處皆當習, 可也.’”(寓)

배치한 것이 분명히 의도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랑좌의 주석을 붙임으로써 주자가 의도한 효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사랑좌의 주석을 통해 行의 측면을 보강하려는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정자의 주석은 비록 두 개의 언급을 붙여 하나로 결합하였음에도 여전히 行보다는 知 편향적으로 읽힌다. 그래서 이 편향성을 사랑좌의 설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이다.⁴⁹⁾ 이에 따라, 둘째, 學의 영역이 知와 行의 결합이듯이 배운 바를 거듭하는 習 또한 知와 行의 두 영역을 아우르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자면 주자가 『논어집주』에서 모아 놓은 “程子曰” “又曰” “謝氏曰”은 각각이 초점을 두고 설명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하나의 연속된 주석처럼 읽을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아니 어쩌면 연속해서 읽어야 제대로 된 이해이겠다. “程子曰”과 “又曰”의 수준에서는 전자가 知에 후자가 行에 가깝게 읽히지만, “謝氏曰”까지 함께 읽으면 정자의 두 주석은 知에, 사랑좌의 주석은 行에 초점화된 것으로 읽힌다. 이것은 분명 이미 존재하는 주석의 구절에 의거하여 『논어집주』를 저술함으로써 주자가 당면할 수밖에 없었던 고충의 표식이다.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선배 학자의 주석을 통해 말하려는 것이 간과하기 힘든 『논어집주』의 특성이라면, 거기엔 그간 축적된 학문적 전통에 대한 깊은 존중심이 스며들어 있다. 나 자신이 처음으로 말한다는 자부심 못지않게, 나의 말은 누군가 해놓은 말을 이어 하는 말이고 이미 누군가에 의해 말해진 적이 있다는 안도감도 공존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논어집주』의 주자는 잘 말하는 자이기에 앞서 잘 들으려 한 태도의 학자일 수도 있다.

이제 남은 의문은 왜 하필 사랑좌의 주석인가이다. 行에 초점을 두고 해당 구절을 풀이한 학자들이 적지 않은데 왜 사랑좌를 선택했을까.⁵⁰⁾ “앓음에 시동과 같이 함은

49) 이 문제는 20번째 조목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朱子語類』, 672면. “‘배우고 때때로 익힌다’는, 만약 이천의 말대로라면 오로지함이 사색하는 데에만 해당되어 힘써 행하는 공부가 없고, 상채의 말대로라면 힘써 행하는 데에만 오로지하여 탐구하는 뜻을 폐하는 것이니, 모두 편벽된 듯하다. (‘學而時習之’, 若伊川之說, 則專在思索而無力行之功; 如上蔡之說, 則專於力行而廢講究之義, 似皆偏了.)”(道夫)

50) 范氏와 游氏 등이 거론된 경우를 보인다. 『주자어류』, 672면. “問: ‘學而時習之’, 伊川說‘習’字, 就思上說; 范氏游氏說, 都就行上說. 集注多用思意, 而附謝氏‘坐如尸, 立如齊’一段, 為習於行. 據賀孫看, 不思而行, 則未必中道; 思得慣熟了, 却行無不當者.” 曰: “伊川意是說習於思. 天下事若不先思, 如何會行得! 說習於行者, 亦不是外於思. 思與行亦不可分說.”(賀孫)

앉아 있을 때의 익힘이요, 서 있음에 재계함과 같이 함은 서 있을 때의 익힘이다(坐如尸, 坐時習也, 立如齊, 立時習也)”라는 사씨의 설명에 대해 주자는 뜻이 엄밀하지 않다고 불만스럽게 생각했다. 주자는 “언제나(常)”라는 뜻이 명확히 표현되어야지 習의 뜻에 맞다고 하였다.⁵¹⁾ 그렇지만 결국 주자는 사랑좌의 주석을 선택해 정자의 주석에 붙였다.⁵²⁾

어떤 점에서 『논어집주』의 사랑좌의 주석은 새로이 재배치된 주석의 일부로 읽을 필요가 있다. 기실 사랑좌의 주석은 習의 중단 없음을 소홀히 했다가보다는 習의 순간순간의 단면을 설명하는 쪽에 가깝다. 언제나 하고 중단 없이 하는 것이 習이라면 習은 추상화되어 구체화하기 어렵다. 사랑좌 역시 “어느 때든 익히지 않음이 없다(無時而不習)”고 전제하고 있는바, 어느 때든 익히지 않음이 없다는 부단한 지속성이 자칫 느슨한 시간적 연속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사랑좌의 주석은 그 연속선의 횡단면을 보여 매 순간의 강도와 밀도를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

이미 앞에서 주자가 習의 뜻을 풀이하면서 정자의 “重習”이 아니라 『설문해자』에서 ‘새의 쉼 없는 날기 연습’이라는 풀이를 선택했음을 보았다. 이것은 “不已”의 중단 없음에 구체화된 이미지를 부여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習은 반복이라는 형식의 문제이지 실질적 내용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習은 지속 속에서 반복되는 강도 혹은 밀도를 표상할 뿐이다. 순간순간의 무한한 나열로 표현할 수는 없으므로, 사랑좌의 주석은 특정 시점에서 작용하는 힘의 강도를 환기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 주자가 사랑좌 주석의 일부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었을 것이다.

51) 가령 黃義剛의 기록을 예로 들 수 있다. 『주자어류』, 672~673면. “這箇須是說坐時常如尸, 立時常如齊, 便是”

52) 『논어집주』의 사랑좌의 주석은, “學而時習者, 無時而不習, ‘坐如尸’則坐時習也, ‘立如齊’則立時習也, ‘造次必於是’則造次時習也, ‘顛沛必於是’則顛沛時習也. 如此則德聚矣, 能無說乎?”(『논어정의』, 27면)에서 일부만 뽑은 것이다. 사랑좌는, 앉고 서는 일상적 행위에서든 경황 없고(造次) 위급한(顛沛) 다소 예외적 상황에서도 지속되어야 할 習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時習에 대한 적절한 풀이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造次와 顛沛는 『논어』 「里仁」에서 仁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다가 다소 극단적 상황이라서 時習의 일상적 지속성과는 어울리지 않기도 한다. 분량의 문제를 제외한다면, 이것도 주자에 의해 배제된 또 다른 이유가 아닐까 싶다.

IV. 제2절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의 주석 읽기

① 『논어집주』의 주자 주석 문장은 다음과 같다.

朋은 同類이니 먼 지방으로부터 온다면 가까이 있는 자들이 (찾아움을) 알 수 있다. 程子が 말씀하였다. “善을 남에게 미쳐서 믿고 따르는 자가 많다. 그러므로 즐거울 수 있는 것이다.” 또 말씀하였다. “기쁨(說)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樂(즐거움)은 발산함을 위주하니 외면에 있는 것이다.”

朋, 同類也, 自遠方來, 則近者可知. 程子曰 以善及人, 而信從者衆, 故可樂. 又曰 說在心, 樂 主發散在外.⁵³⁾

주자는 朋의 글자 풀이로부터 시작한다. 朋은 같은 부류라 하고는, 그런 사람이 먼 곳에서도 온다면 가까운 곳에서는 어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역시 정자의 주석 둘을 나란히 붙여 놓았다. 정자의 주석 이전에 주자가 ‘즐거움[樂]’에 대한 풀이를 해 놓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정자의 주석에다가 그 역할을 이월한 것이다. 정자의 첫 번째 주석은, 함께 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즐거울 수 있다고 함으로써 수적으로 많음[衆]이 즐거움의 이유라고 풀이한다. 두 번째 주석은 기쁨[說]과 즐거움의 차이를 설명한다. 說이 내적이라면 樂은 외적으로 발현되는 것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되므로 정자의 두 주석은 주자 자신이 서술한 구절과 연속해서 읽힌다. 달리 말해 비록 정자의 주석을 인용한 구절이라도 의미상 주자 자신의 풀이와 구별되지 않는다. 물론 정자의 주석은 역시 특정한 질문을 내포한 답변이기도 하다. 첫 번째 주석은, 벗이 오면 왜 즐거운가에 대한 답이다. “自遠方來”에서 초점은 ‘멀다’에 있지 않고 ‘많다’에 있으며 그 많음으로 인해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주석은, ‘기쁨’과 ‘즐거움’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답이다. 학습의 내면적 경향성과 대비되는 외적 발현의 정서가 즐거움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주자가 정자의 주석을 가져 왔지만 실상 주자 자신의 목소리로 들리는 것과 다름없다. 그 반대로 정자의 목소리만 들린다고도 해도 무방하다.⁵⁴⁾

53) 성백효, 앞의 책, 29면.

주자의 이러한 주석 방식이 빚어내는 효과는 “朋=同類”라는 글자 풀이에서부터 시작된다. 실상 “朋=同類”라는 주자의 풀이는 조금 낯설다. 상식적으로 朋友라는 풀이를 피할 뿐만 아니라 주자 이전의 많은 주석가들처럼 朋을 ‘弟子’ 혹은 ‘同門’이라는 뜻으로 읽지도 않기 때문이다.⁵⁵⁾ 다시 언급하겠지만, 『논어정의』에 수록된 복송 학자 대부분의 견해에 대해서도 주자의 비판적 입장이 매서운 편이다. 그렇다면 “朋=同類”라는 풀이에는 주자 나름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을 터이다. 『논어혹문』에서 정자의 주석에 대해 주자가 다음처럼 설명한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 나의 배움이[배움을 통해] 나 자신에게서 터득한 것이, 이미 남에게 미치기에 충분한데다가 남 중에 믿고 따르는 자가 또한 이처럼 여럿이라면, 장차 그 마음에서 똑같이 옳다 여기는 바[同然]를 모두가 터득할 수 있어서 내가 터득한 것이 나 한 사람의 사사로움[私]이 되고 말뿐만은 아니다.⁵⁶⁾

여기서 확연히 드러나듯이 주자에게 朋이란 私와 대비되는 同(똑같은)의 존재를 지칭한다. 부연하면 누구나 똑같이 옳다고 여기는 바를 알거나 믿는 이들이다. 이러한 ‘똑같은’은 주지하는 바 『맹자』에서 유래한 어구이다.

맹자께서 말씀하였다. “풍년에는 자제들이 의뢰함이 많고 흉년에는 자제들이 포악함이 많은 법이니, 하늘이 재주를 내림이 이와 같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빠뜨림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 그러므로 무릇 同類(같은 부류/무리)인 것은 대부분 서로 같으니, 어찌 홀로 사람에게 이르러서만 의심을 하겠는가. 성인도 나와 同類의 존재이다. …… 그러므로 ‘입이 맛에 있어서 똑같이 즐겁기 있으며, 귀가 소리에 있어서 똑같이 들음이 있으며, 눈이 색(色)에 있어서 똑같이 아름답게 여김이 있다.’고 하는 것이니, 마음에 이르러서만 홀

54) 이미 『논어혹문』에서 주자는 정자의 “以善及人，而信從者衆”이라는 주석에 대해 겨우 아홉 글자에 불과하지만 빼거나 더할 수 없다는 극찬을 하고 있다. “纔九字爾而無一字之虛設也，非見之明而驗之實，其孰能與於此?”(610면)

55) 程樹德, 『論語集釋(一)』, 中華書局, 1990, 5~8면; 黃懷信, 『論語彙校集釋』上, 上海古籍出版社, 2008, 23~25면에서 “同處師門曰朋”, “同師曰朋”, “朋, 卽指弟子” 등 대표적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56) 『논어혹문』, 608면. “今吾之學所以得於已者既足以及人，人之信而從者又如此其衆也，則將皆有以得其心之所同然者，而吾之所得不獨爲一己之私矣”

로 똑같이 옳게 여기는[同然] 바가 없겠는가. 마음에 똑같이 옳게 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理와 義를 이른다. 성인은 우리 마음에 똑같이 옳게 여기는 바를 먼저 아셨을 따름이니, 그러므로 理와 義가 우리 마음에 기쁨은 고기가 우리 입에 좋음과 같은 것이다.”⁵⁷⁾

『맹자』 「告子」 편의 한 대목이다. 이미 先覺을 논의할 때 살펴본 내용이 끝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인용문 앞 부분의 “同類”가 눈에 띈다. 주자의 주석에서 쓰인 同類가 이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인다. 朋=同類라는 규정은, 정자의 두 주석이 각기 설명하는 두 측면을 아우를 수 있다고 주자가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는 “衆”, 다른 하나는 “樂”의 문제이다.

첫째, 衆의 해석 문제. 벗이 멀리서 왔다는 거리의 문제를 수의 많고 적음으로 해석한 정자의 해석을 견지하려면, 弟子와 同門이 함의하는 바처럼 朋을 師友 또는 講學과 결부시켜 해석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관건이다. 여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다. 講學이라는 말에는 서로의 차등이 환기되기 쉽다는 것이다. 자칫 부족한 내가 배워서 라거나 혹은 부족한 이에게 가르쳐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렇게 해서 누리게 되는 즐거움은 주거나 받아서이지 같음에서 연유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멀리서 찾아오는 것도 서로 다르다는 이유에서가 된다.⁵⁸⁾ 이렇게 되면 學=效라는 차등에서 시작하여 習의 자기 충족성에 이르는 爲己의 차원이 다시 외부 의존적으로 하강한다. 이런 입장은 『논어집주』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난다.⁵⁹⁾

57) 『맹자집주』 「告子上」. “孟子曰: ‘富歲, 子弟多賴; 凶歲, 子弟多暴, 非天之降才爾殊也, 其所以陷溺其心者, 然也. …… 故凡同類者, 舉相似也, 何獨至於人而疑之? 聖人, 與我同類者. …… 口之於味, 有同者也, 易牙, 先得我口之所嗜者也. …… 至於味, 天下期於易牙, 是天下之口, 相似也. …… 惟耳, 亦然, …… 是天下之耳, 相似也. …… 故曰: ‘口之於味也, 有同者焉; 耳之於聲也, 有同聽焉; 目之於色也, 有同美焉, 至於心, 獨無所同然乎? 心之所同然者, 何也? 謂理也義也, 聖人, 先得我心之所同然耳. 故理義之悅我心, 猶芻豢之悅我口.’”

58)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자는 『논어후문』을 통해 『논어정의』에 수록된 선배 학자들의 관련 해석을 ‘取益·講學·才大而友遠·不講之爲憂’ 등의 측면에서 거론하며 비판하였다. 후술하기로 한다. 아울러 주자의 입장은 60대 이후 만년의 기록에서도 그래도 관찰되고 있다. 『주자어류』에 실린 林夔孫 기록을 보인다. 68세 이후의 기록이다. “或問謂朋來講習之樂爲樂.” 曰: “不似伊川說得大. 蓋此箇道理天下所公共, 我獨曉之, 而人曉不得, 也自悶人. 若‘有朋自遠方來’, 則信向者衆, 故可樂. 若以講習爲樂, 則此方有資於彼而後樂, 則其爲樂也小矣.”

둘째, 樂의 풀이. 앞 구절의 說에 이어 樂 또한 정서의 표현이다. 정자의 주석은 내적 충일감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발산되는 것이 樂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자가 同類를 빌어온 『맹자』에서 동류란 理와 義를 똑같이 옳게 여기는[同然] 부류라는 뜻이다. 그런데 맹자는 이 똑같음을 미각·청각·시각 등 감각의 충일한 만족감 즉 悅와 동질적 관계라고 설명한다. 『맹자』에 근거를 둘 때 감각적 기호[悅]와 똑같이 옳다고 여김(同然)은 서로 유비적 관계를 이루게 되고, 이에 기대어 朋=同類라는 주자의 글자 풀이가 마련된 것이다. 즉 ‘기쁨(說)’과 ‘즐거움(樂)’ 같은 정서적 양태를 ‘같음(同)’이라는 의리적 차원과 결부시킬 근거가 확보된다.

이러하다면, 이제 기쁨과 즐거움은 서로 구별되는 것임과 동시에 동질적인 것의 연속이기도 해야만 한다. 요컨대 기쁨과 즐거움은 질적으로 동일한 상태의 정서를 발현 양태에 따라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 요청된다. 이와 관련된 주자의 언급은 생애 전반에 걸쳐 여러 차례 확인된다.

① 물었다. “說과 樂은 모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정자께서 안팎의 구별을 두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답했다. “정자가 樂은 외면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신 것은 아니다. 내면에서 가득 쌓여 외면으로 넘쳐 오는 것일 따름이다. 說은 내면에서 얻었어도 외면으로 발현되지 않는 것이다.”

② ‘발산해서 외면에 있다’고 일컫는 것은 바로 안을 거쳐 나온다는 뜻이지만, 樂의 글자 뜻은 발산해서 외면에 있음을 위주로 해서 명칭을 얻었을 뿐이다.

③ 어떤 이가 여쭙었다. “說과 樂은 어떤 것입니까?” 답하셨다. “說은 자기 마음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어서 남들은 도리어 알지 못하고, 樂은 외면으로 발산되는 것이다.”

④ 說은 마음 속으로 제 스스로 기뻐하는 것이고, 樂은 說이 외면으로 발현된 것이다.⁵⁹⁾

59) 주자 62세 이후의 기록(『주자어류』, 676면)이다. “楊氏가 말한 ‘더불어 함께 강학한다’와 같은 경우는 모두 옳지 않다. 내가 이미 스스로 선을 남에게 미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남에게 의뢰하여 함께 강학한다면 어찌 ‘벗이 먼 곳으로부터 오는 일이 있’겠는가!” (若楊氏云與共講學之類, 皆不是. 我既自未有善可及人, 方資人相共講學, 安得有朋自遠方來! 璘)

①은 『논어혹문』의 기록이다. 주자에 따르면, 정자 주석의 說과 樂 구분은 내적으로는 동질적인 정서 상태가 외부적 발현 여부에 따라 다르게 설명된 것뿐이다. ②는 여조검의 물음에 답한 편지의 일부이다. 1174년 주자 45세에 씌어졌다. 여기서도 풀이 방식은 마찬가지이다. 동일한 대상을 안팎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지칭한 것이라 한다. ③과 ④는 『주자어류』의 문답이다. ③은 周謨의 기록으로 기해년(1179) 이후에, ④는 沈憫의 기록으로 1198년 이후에 속한다. 각각 주자 나이 50세 이후와 69세에 해당한다. 사서학 체계의 1차 완성 시기부터 서거 직전까지에 걸쳐 있다. 그렇지만 설명 내용은 ①과 ②와 다르지 않고 같다. 외부적 시선으로 지각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 것이라 한다.

이처럼 『맹자』의 同然에 근거하여 주자는 의리와 정서의 통합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심상하다면 심상한 글자 풀이지만, 朋=同類라는 주석에는 說과 樂이 어떻게 서로 같으면서 다르지 설명하려는 단서가 잠재되어 있다. 이어서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온다는 구절의 의미가 수적인 많고 적음으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자의 두 주석을 연속해서 붙였던 것이다. 이러한 형태를 통해 정자의 주석을 자신의 주석으로 통합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주자는 ‘朋-衆-樂’의 의미 연쇄를 만들어 내고 있다. 다른 목소리가 마치 하나의 목소리가 되도록 재조정된 결과로 읽어야 한다.

② 『논어집주』는 여러 주석이 단순히 병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껏 보았듯이 『논어집주』에 재배치되어 있는 여러 주석들이 때론 하나의 주석처럼 연결되기도 하고 때론 구분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맹자』의 同類와 同然처럼 이면에서 주석의 근거로 작용하는 간접화된 텍스트들도 공존한다. 여기엔 경합 가능한 텍스트들의 권위에 대한 해석적 선택과 배제가 전제될 수밖에 없다. ‘朋-衆-樂’의 연쇄를 통해 아주 간명하게 서술된 주자의 주석만 하더라도 적잖은 해석 투쟁을 거쳐서 도달된 결과이다.

유가 이외의 다른 학술이나 주자와 시간적으로 거리가 먼 송 이전의 논의들은 아예 논외로 하고, 정자로부터 연원한 북송 학자들로 범위를 한정해도 사정은 전혀

60) 『논어혹문』, 610면, “說樂皆出於心, 而程子有內外之辨, 何也? 曰: 程子非以樂爲在外也, 以爲積滿於中而發越乎外耳. 說則方得於內而未能達乎外也.”; 『주문공문집』, 2167면, “謂之發散在外, 即是由中而出, 但樂字之義, 主於發散在外而得名耳.”; 『주자어류』, 674, 676면. “或問: 說與樂如何? 曰: 說是自家心裏喜說, 人却不知, 樂則發散於外也.”; “說是中心自喜說, 樂便是說之發於外者.”

달라지지 않는다. 「학이」편 제 1장과 관련하여 『논어정의』에 해석이 수록된 북송 학자는 7명이지만 주자의 주석에 직접 원용된 것은 정이천·사량좌·윤돈 세 사람일 뿐더러 그마저도 일부만 절취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한 2절 ‘有朋~’ 구절의 주석에서는 정자 한 사람만 인용하고 있거니와 그것도 의도된 재배치를 거쳐서이다. 북송 학자들에 대한 논평이 담긴 『논어후문』을 통해서, 주자의 주석이 기존의 논의들과 어떤 논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선택과 배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부분적이나마 엿볼 수 있다. ‘朋-衆-樂’의 연쇄에서 관건이 되는 樂의 문제로 한정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논어후문』에서 주자는 『논어정의』에 실린 선학들의 주석을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비판하고 있다.

첫째는, 보태고 더해지는 이로움[益]을 근거로 즐거움의 이유를 풀이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서 이로움을 구하는 것이니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떤 곳에서 와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둘째는, 함께 공부를 연마해서[講學] 즐겁다고 해석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義理가 둘이 아님을 알게 되는 데서 즐거움의 이유를 찾는다면 이 또한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외부에 의뢰하는 것이 되고 만다. 셋째는, 나의 능력에 따라 벗의 규모가 달라져서, 멀리 있는 벗을 사귄수록 즐겁다고 보는 경우이다. 나의 명성이 널리 퍼져 벗이 멀리서 온다는 뜻이다.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지나쳐서 교만하고 인색한 태도를 옹호하는 데에 가깝다고 비판한다. 넷째는, 둘째 경우와 비슷한데, 배움을 연마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憂]과 대비해서 즐거움을 풀이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서도 나에게 없는 것을 타인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므로 첫째 경우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한다.⁶¹⁾

주자가 거론한 넷 중에서, 두 번째는 사량좌·유작, 세 번째에서는 범조우와 유작, 네 번째에는 양시의 풀이를 직접 거론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첫 번째는 북송 학자의 주석을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으므로,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해석을 거론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주자가 이들 넷에 대해 비판할 때, 주자 나름으로 저야 할 부담

61) 『논어후문』, 610면. “曰: ‘朋來之樂, 奈何?’ 曰: ‘以為樂其可以取益, 以為樂其相與講學, 則我方資彼, 以為益, 彼又安能自遠而來哉? 以為樂其義理之不二, 則是未能自信而藉外以為樂也. 以為樂於才大而友遠, 以為樂於充實輝光而聞譽有以致之, 則是以此自幸而有驕吝之私也. 至於知不講之為憂, 則知講學以為樂, 則正前所謂以彼之有, 形此之無者, 夫樂與不樂, 決於吾心可矣, 豈待此而後判耶?’”

또한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이러한 해석은 자의적인 풀이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갖춘 전거 문헌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논어』의 해당 구절이 자연스레 연상시키는 경전의 구절들이 함께 원용된다. 어쩌면 “同類” “同然” 이상으로 권위의 무게를 갖추고 있다.

첫 번째의 경우라면 벗이 찾아 와서 즐거운 이유를 “益”의 이로움에 찾고 있거니와 이것은 당장 『논어』의 “益者三友”와 해석적으로 연동되게 마련이다. 더군다나 그 발언 주체가 공자이기까지 하다. 여기에 “자기만 못한 자를 벗삼으려 하지 말라(無友不如己者)”(「학이」)는 구절까지 보탬 수도 있다. 『논어』에 있는 공자의 발언만으로도 충분히 해석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⁶²⁾

두 번째의 경우는 朋을 제자나 동문으로 설명해온 기존의 방식과 관련이 깊다. 한나라 鄭玄 이후로 당시까지 상식적으로 수용되고 있었다.⁶³⁾ 글자의 훈고학적 주석 자체가 주요한 근거가 된다. 여기에 더하여, 범조우는 『논어』 구절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키는 『周易』 「兌卦」에 의거하기도 한다. “단전에 말하기를, ‘兌는 기뻐함이다’”(象曰兌, 說也)”와 “상전에 말하기를, 붙어있는澤이兌이니 군자가 보고서 붕우들과 강습한다”(象曰麗澤, 兌, 君子以, 朋友講習)는 구절은, 悅과 講習의 연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해 보인다. 이를 근거로 삼아 講學과 朋의 상관성을 강하게 부각한다면, 반대 논리를 펴기에 사정이 녹록치는 않아 보인다.⁶⁴⁾

그러면서 이것은 네 번째 경우와 해석적으로 결합하기가 쉽다. 바로 『논어』의 “배움이 강습되지 못하는 것(學之不講)” “이것이 나의 근심거리이다(是吾憂也)”라는 구절 때문이다.⁶⁵⁾ 이것은, 즐거움은 강학에 있다면서 양시가 활용한 방식이다. 특히 이 구절에서의 憂는, 벗이 와서 즐겁다는 樂의 의미와 대비될 수 있어 더 유용해 보인다. 배움을 연마하지 못하면 즐겁지 않다는 공자의 발언인 만큼 해석의 권위는 쉽게 보장된다.

62) 「季氏」. “孔子曰 益者三友, 損者三友, 友直友諒友多聞, 益矣. 友便辟友善柔友便佞, 損矣.”

63) 程樹德, 『論語集釋(一)』, 5~8면; 黃懷信, 『論語彙校集釋』 上, 23~25면의 관련 주석 참조.

64) 講學과 관련된 사랑조의 언급을 추가해서 보인다. “有朋自遠方來, 非必同堂合席, 專門同師然後謂之朋也. 考諸古人, 先得我心之所同然; 求諸今人, 信其與己之不異, 皆朋也, 能無樂乎?” 이 배경에 『맹자』의 尙友千古論이 있다.

65) 「述而」. “德之不修, 學之不講, 聞義不能徙, 不善不能改, 是吾憂也”

세 번째의 경우는 『맹자』의 “천하의 훌륭한 선비라야 천하의 훌륭한 선비와 벗할 수 있네”와 “좋은 명성과 넓은 명예가 몸에 베풀어져 있다”는 유명한 구절을 해석의 전거로 활용한다.⁶⁶⁾ 앞의 구절은 범조우와 사랑좌가 자기 해석의 근거로 활용하였고, 뒤의 구절은 유작이 원용하였다.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멀리서 찾아오는 이유를 설명하고 또 그렇게 되면 왜 즐거운지 풀이하기 위해서였다. 『논어』의 구절과 잘 공명하는 구절로 읽힐 수 있다. 이처럼 이들의 『논어』 읽기에는, 『논어』 안의 다른 대목은 물론이고 『논어』와 인접한 관련 텍스트가 긴밀하게 서로를 참조하는 그물망이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 텍스트성이 특히나 경전의 권위와 결부되면 짊어져야 하는 부담의 무게가 결코 녹록치 않다. 그러므로 정자의 두 구절을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마련된 주자의 간명한 주석이 감당하는 하중은 무척 크다 하겠다. ‘朋-衆-樂’의 연쇄에 기반한 주자의 주석은, 위의 네 가지 해석 경향들과 맞설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있다.

學習의 자기 충족적 기쁨이 흘러 넘쳐 드러나는 것이 즐거움이므로, 결핍을 채우기 위해 朋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탬의 이로움이나 강학을 통한 결핍의 채움이 즐거움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세 번째처럼 주체의 능력에 따라 벗의 규모를 가늠하는 방식은 자부심을 넘어선 오만함이다. 이것이 즐거움일 수는 없다. 즐거움이란 자기 충족적 기쁨의 주체들이 이미 내재화된 자기 확신을 상호 확인하는 과정의 산물이다. 朋이란 외면적 관계이므로 “衆” 즉 수의 많음에 초점이 두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은 안팎을 경계로 한 양태 차이로 해석된다.

주자의 주석은 많은 질문을 견딜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논어정의』의 사례만을 간략하게 더듬었지만 주자로서는 다면적인 경합과 토론에 진력하였다. 다른 주석들은 다 배제하고 정자의 주석만 선택한다. 이를 거쳐, 최종적으로 39자의 짧은 주석문이 다음처럼 남았다. “朋, 同類也, 自遠方來, 則近者可知. 程子曰 以善及人, 而信從者衆, 故可樂. 又曰 說在心, 樂 主發散在外.” ‘朋-衆-樂’의 연쇄라는 간명한 주자의 주석에는 이런 복잡한 해석적 경합의 내력이

66) “孟子謂萬章曰 ‘一鄉之善士, 斯友一鄉之善士, 一國之善士, 斯友一國之善士, 天下之善士, 斯友天下之善士.’”(「萬章下」); “詩云 ‘既醉以酒, 既飽以德’ 言飽乎仁義也, 所以不願人之膏粱之味也, 令聞廣譽 施於身, 所以不願人之文繡也”(「告子上」)

담겨 있다. 주자 해석의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견뎌야 하는 하중만큼이나 주자 주석에 감추어진 두께도 엄청나다라는 사실은 인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V. 제3절 ‘人不知而不慍，不亦君子乎’의 주석 읽기

① 「학이」편 1장의 마지막 문장에 대한 『논어집주』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慍은 노여움을 품은 뜻이다. 군자는 덕을 완성한 이의 명칭이다. 윤씨가 말하였다. “배움은 자신에게 달려 있고,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음은 남에게 달려 있으니, 어찌 서운해 할 것이 있겠는가.” 정자가 말씀하셨다. “비록 남에게 미치는 것을 즐거워하나 옳게 여김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운함이 없어야 이른바 군자인 것이다.” 내 생각은 이렇다. “남에게 미쳐서 즐거운 것은 順 이어서 쉽고, 알아주지 않는데도 서운해하지 않는 것은 逆이어서 어렵다. 그러므로 오직 덕을 이룬 군자만이 능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덕이 이루어지는 까닭은 또한 배우기를 올바르게 하고 익히기를 익숙히 하고 기뻐하기를 깊이 하여 그치지 않음에서 말미암을 뿐이다.”

○ 정자가 말씀하셨다. “樂은 說을 말미암은 뒤에야 얻어지는 것이니, 樂이 아니면 군자라고 말할 수 없다.”

慍, 含怒意. 君子, 成德之名. 尹氏曰 學在己, 知不知在人, 何慍之有? 程子曰 雖樂於及人, 不見是而無悶, 乃所謂君子. 愚謂 及人而樂者, 順而易, 不知而不慍者, 逆而難. 故惟成德者能之. 然德之所以成, 亦由學之正, 習之熟, 說之深而不已焉耳.

○ 程子曰 樂, 由說而後得, 非樂, 不足以語君子.

위의 주석 방식은 더 특이하다. 1장 1~2절에서는 글자 풀이에 이어 해설의 첫 문장은 주자의 목소리로 시작한 반면에, 여기서는 윤돈의 주석으로 시작한다. “慍”과 “君子”의 글자 풀이에 이어 윤돈과 정자 그리고 주자 자신의 풀이가 이어지는 순서로 주석 문장이 구성되었다. 앞서 살핀 주자의 주석 방식을 감안할 때, 이러한 배치 또한 주자 나름으로 의도한 결과로 보인다. 단적으로 이 세 발언이 어떤 관련을 이루고 있는지 눈여겨보아야 하겠다.

윤돈의 풀이는 『논어집주』의 1차 완성 시점 이전부터 줄곧 주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38세 쓴 편지에 이미 윤돈의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는 언급이 보인다.⁶⁷⁾ 이후 주자는 『논어후문』에서 윤돈의 풀이에 대해 세 차례 언급해 놓았다. 學·習을 “自得”으로 설명한 것이 타당하고, “배움은 자신에게 달려 있고,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음은 남에게 달려 있다”는 위의 풀이가 정곡을 얻었으며, 그리고 전체적으로 윤돈의 풀이 방식은 평이하고 간략하되 정밀하다는 평가가 그것이다.⁶⁸⁾ 그래서 『논어집주』의 최종본에 이렇게 남았을 것이다.

주석문 전체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주자가 인용한 윤돈의 설명은 실상 愠의 풀이에 해당한다. 바로 이어지는 정자의 주석은 愠과의 관련 속에서 군자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가깝다. 따라서 윤돈과 정자의 주석은 각각 “愠”과 “君子”의 글자 풀이에 호응한다. 이 두 주석을 통해 일차적으로 경문 구절의 설명이 완료된 것이다. 뒤에 붙여진 주자 자신의 견해는 충위를 조금 달리 한다고 보는 편이 온당하겠다. 이것은, 주로 정자의 주석으로 시작하는 『논어집주』의 통상적인 형태와는 달리, 스승인 정자의 주석보다 윤돈의 주석이 왜 앞에 배치되었는지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경문을 풀이하는 순서상 윤돈의 주석이 먼저 제시되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하다. “愠”과 “君子” 순으로 등장하는 문장이므로, 윤돈의 설명을 앞서 보인 것이다. 윤돈의 주석에는 군자에 관한 언급이 없다. 윤돈의 주석과 비교했을 때 정자의 주석은 樂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해서 군자로 귀결된다. 그렇기는 하지만 윤돈의 스승인 정자의 견해를 먼저 제시하지 않은 것은 통상적 관념에 분명 어긋난다. 이에 대해서는, 주자의 아들인 朱在의 입을 통해 해명된 바 있다. 「학이」 첫 장에서 윤씨를 먼저 하고 정이를 뒤로 한 것은 경문의 순서에 따라 타당한 견해를 중심으로 주석을 냈을 따름이므로 그 배열 순서와 지위의 고하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⁶⁹⁾ 이런 해명이 필요할

67) 『주문공문집』 권43 「答陳明仲答」, 1952면. “人不知而不愠, 和靖所謂學在己知不知在人何愠之有者, 最爲的當.” 편지의 연대 고증은, 陳來, 『增訂本 朱子書信編年考證』, 三聯書店, 2007, 54면; 顧宏義, 『朱熹師友門人往還書札彙編』, 上海古籍出版社, 2018, 252면 참조.

68) 『논어정의』에 인용된 윤돈의 풀이 전체는 이렇다. “○尹曰: ‘學而時習之, 無時而不習也, 能有所自得, 故說 有朋自遠方來, 其道同而信之也, 故樂. 學在己, 不知在人, 何愠之有, 故曰: 君子.’”(『논어정의』, 29면) 이에 대한 주자의 논평은 각각 다음과 같다. “尹氏之所謂自得者近之.”; “至論其所以然者, 則尹氏爲尤切, 使人之始學即知是說以立其心, 則庶乎其無慕於外矣.”; “尹氏平淡簡約, 雖意有不周, 而其精實之味, 爲不可及耳.”(각각 『논어후문』, 609, 611, 612면)

69) 王懋竑, 『朱熹年譜』, 78면; “集注于正文之下, 正解說字訓文義與聖經正意, 如諸家之說有切當明白

만큼 윤돈의 주석을 앞에 배치하는 것은 조심스런 일이다. 하지만 분명 뒤에 붙여진 정자의 주석은 慍과 군자의 상관 관계를 설명하는 데 치중한 반면에, 윤돈은 學과의 관련 속에서 慍의 의미를 해명하고 있다.

이 점은 기억해 둘 만하다. 바로 이 점이 주자 주석이 기존 주석과 차별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주자의 견해와 연계되는 측면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주자는 學(說)-樂의 연속선상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樂의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정자의 주석을 윤돈의 주석 뒤에 붙인 이유이기도 하다. 『논어정의』에 수록된 기존 주석들과 견주어 보면 윤돈과 정자의 주석을 포함하는 주자 주석이 얼마나 독특한지 금방 확인된다.

〈표 5〉『논어정의』주석의 ‘人不知而不慍’ 관련 경전 인용 사례⁷⁰⁾

순번	인명	인용 구절	출전
2-1	范祖禹	不見是而無悶	『易·乾卦·文言』
2-2	范祖禹	君子依乎中庸，不見知而不悔，惟聖者能之	『中庸』
4-1	謝良佐	飯蔬食飲水，曲肱而枕之，樂亦在其中矣	『論語·述而』
4-2	謝良佐	一簞食一瓢飲，不改其樂	『論語·雍也』
5-1	游酢	尊德樂義之士，囂囂自得	『孟子·盡心上』
5-2	游酢	不怨天，不尤人	『中庸』, 『孟子·公孫丑下』 ⁷¹⁾
5-3	游酢	遯世無悶，不見是而無悶	『易·乾卦·文言』
5-4	游酢	不念舊惡，怨是用希	『論語·公治長』
5-5	游酢	遺佚而不怨，阨窮而不憫	『孟子·公孫丑上』, 『孟子·萬章下』

위의 표에서 쉽게 드러나듯이, 북송 학자들의 주석은 대부분 知不知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悶(번민)·怨(원망)·尤(탓함) 등의 글자가 포함된 경전 구절을 원용하고 있다. 『논어후문』에서 북송 학자들의 『논어』주해를 검토하면서, 이들에게 자주 보이는 假借 즉 권위 있는 다른 문헌의 구절을 빌어 경전을 해석하는 경향을 경전 해석의

者，卽引用而不沒其名，如學而首章先尹氏而後程子，亦只是順正文解下來，非有高下去取也。” 이 구절 다음에 “朱在過庭所聞”이라 하여 주재가 부친에게 들은 바라고 적혀 있다.

70) 순번 앞의 숫자는 『논어정의』에서 해당 조목이 수록된 순서이다.

71) 『논어』「현문」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지만, 공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발언한 것이므로 제외한다.

큰 병통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구절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억지로 끌어다 붙여 뜻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내적 이해가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지하는 폐단에 빠진다는 것이다.⁷²⁾

이런 맥락에서 범조우나 유작이 『주역』의 구절에 근거하여 독해하는 데에 대하여, 주자는 지나치게 고원한 접근이라고 비판한다. 유작의 경우는 이에 더하여 백이와 유하혜를 평가하는 구절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주자는 백이의 원망과 유하혜의 사례를 끌어오는 것은 맥락상 부적절한 관련이라고 지적하였다. 사랑자는 타인의 알아줌이 문제되지 않는 힘은 樂에 있다고 보아 그 실례를 공자와 안연의 행적에서 찾고 있다. 그렇지만 주자는 이때의 즐거움은 부득이한 여건에 다다른 제한적 상황에서의 즐거움이므로, 관련지어 논의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하였다.⁷³⁾ 그래서 정자와 윤돈의 주석만 남겨, 說樂이라는 「학이」1장의 내재적 맥락에 초점을 둔 주석문을 구성한 것이다.⁷⁴⁾

주자의 주석은 “그러나”를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앞부분에서는 정자의 말을 보충하듯 이어받는다. 정자의 주석은 乃라는 부사적 허사가 환기하듯 不愜 즉 서운해 하지 않는 단계를 거치고 나서야 군자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혀, 군자 여부의 판정 기준을 설명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렇지만 不愜이 어떤 성격이길래 그러한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주자의 주석 앞부분은, 이를 보충하여 樂과의 대비를

72) 『논어혹문』, 609면. “且凡傍緣假借, 最釋經之大病. 蓋或文句偶同, 而旨意實異; 或志意略似, 而向背實殊, 或反以彼之難而釋此之易, 或強以彼之有而形此之無. 使意已親者引之而反疎, 義已明者引之而反暗, 甚則彼此俱昧, 而欲互以相明, 如獐邊之鹿, 鹿邊之獐, 循環無端, 而卒無所決. 其偶值文意之適同, 而無前數者之患, 亦不免為倚重於人, 而取信於外, 終不若出於吾之所親見而自言者之確而真實也.”

73) 『논어혹문』, 610~611면. 핵심 구절만 보이기로 한다. “或者乃以聖人之事當之, 則已過高而失之矣.”; “又有以遺佚不怨, 陋窮不憫當之, 則亦已太高矣.”; “豈以自待之厚與迫於不得已而後然哉”

74) 樂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는 정자의 주석에도 “옳게 여김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운함이 없다(不見是而無悶)”는 『주역』 「乾卦·文言」의 구절이 들어 있다. 북송 학자들에 대한 비판에 이어서 주자는 곧장 이 구절은 정자 자신에게 이미 내면화된 언어라 괜찮다고 변명하고는 있지만, 온전한 지지라고 하기엔 의문이다. (曰: “然則程子所謂不見是而無悶者, 非耶?” …… 曰: “程子所謂易語, 非其立意之所恃, 而古人之引經, 亦吾說已立而資彼以爲助耳, 非初無所主而藉彼以立也.”), 『논어혹문』, 610면) 그렇기는 해도, 정자에게는 다른 풀이가 달리 남아 있지 않고 윤돈의 주석에는 군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자의 주석을 제외하기는 어렵다. 해당 구절을 빼면 不愜 관련 논의가 사라진다.

통해 不慍의 특성에 대해 설명한다. 樂이 나에게 달린 것이라면 慍은 타인에게 달려 있는 문제라서 어렵고 쉬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군자라야만 가능한 일이라 한다.

정자의 주석 문장에서는 不慍 이후에 군자에 이른다는 단계의 선후로 서술되어 있지만, 논리적으로 보자면 不慍은 樂과 동일한 단계에서 다룰 수 있다. 즐거움이 타인에 의해 인지되어 인정받는 경우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란 온전한 즐거움과 부분적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不慍을 내포한 樂은, 樂이 아니라 군자에 의거해야 설명이 용이하다. 그러므로 주자의 주석은 순서를 뒤집어, 군자의 시점에서 설명한다. 덕을 완성한 군자는 온전한 즐거움이 가능한 不慍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이다. 주자의 의도를 존중한다면, 이것은 정자 주석에 내재된 의미의 공백을 보충하는 내용이라 하겠다.

주자의 주석에 이어 章下註 형식으로 정자의 주석을 붙여 놓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樂은 說을 말미암은 뒤에야 얻어지는 것이니, 樂이 아니라면 군자라고 말할 수 없다.”(樂由說而後得, 非樂, 不足以語君子) 이 주석은 ‘기쁨-즐거움-군자’라는 경문의 글자를 그대로 노출함으로써 1장 전체의 내적 연계성을 간추리는 한편으로, 정자의 기본 취지 역시 不慍이 아니라 樂과의 관련 속에서 군자의 함의를 풀이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정자의 주석을 보충한 주자 주석이 정당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실 학습의 說과 봉래의 樂은 나에게서 연유하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이다. 반면에 알아줌의 인정 여부는 타인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수동적 성격이 강하다. 주자의 주석에서는 說과 樂의 연속선상에 慍의 문제를 위치시키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요컨대 不慍은 說-樂의 연쇄를 걸쳐 도달하는 군자의 자리에서 검증되는 부수적 역능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배움과 익힘의 문제가 자칫 군자론으로 수용되기 쉽다. 주자는 주석의 뒷부분에서 다시 學-習-說로의 귀환을 부각한다. 이렇게 보자면, “배움은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함으로써 學에서 시작하는 윤돈의 주석은 주자 주석에 필수적이다. 윤돈의 주석은 不慍의 이유를 學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② 주자 주석의 뒷부분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남에게 미쳐서 즐거운 것은 順이어서 쉽고, 알아주지 않는데도 서운해하지 않는 것은 逆이어서 어렵다.”는

서술을 먼저 살펴보자. 이미 확인했듯이 윤돈과 정자의 주석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주자의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이 두 주석 뒤에 붙은 주자의 주석이 언제쯤 완성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 구절이 씌어진 시점을 확인하는 일은 중요하다. 정자 주석의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면서, 주자 자신의 시각을 명확히 제시하는데에 긴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어렵고 쉽고의 차이로 樂과 不慍을 구분하는 방식은 『논어혹문』이나 문집에서는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노년에 들어 썼을 것으로 짐작된다. 『주자어류』에 이르러서야 潘時舉와 葉賀孫의 기록에서 명확하게 보인다.⁷⁵⁾ 반시거는 1193년·1195년·1196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섭하손은 1191년과 1199년에 주자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⁷⁶⁾ 그러므로 이 두 제자의 기록 시점은 주자 62세 이후에 해당한다. 남강본 『논어집주』 원고가 완성되었을 무렵이거나 그 이후의 일이다.

이처럼 다소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씌어진 시점을 추정해 보는 이유는 주자 주석의 뒷부분이 배움의 올바른 즉 “學之正”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주자의 설명은 이렇다. 타인의 인정 여부에서 자유로운 군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배우기를 올바르게 하고 익히기를 익숙히 하고 기뻐하기를 깊이 하여 그치지 않음에서 말미암을 뿐이다.”(由學之正, 習之熟, 說之深而不已焉耳). 이 문장에서 “習之熟”과 “說之深”은 앞서 살핀 1절의 주석에서 충분히 다루어진 내용이다. 반면에 배움을 한정하는 “올바름(正)”이라는 규정은 꽤 갑작스럽다. 여타의 문헌에서는 보이지 않던 규정이기 때문인바, “愚謂” 이하 주자의 주석은 논지의 맥락상 같은 시점에 씌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正”이라는 규정이 언제부터 등장하는지 추정하기 위해서 어렵고 쉽고의 구분이 나타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찾아본 것이다.

“由學之正, 習之熟, 說之深而不已焉耳”라는 문장은 1절의 주자 주석 가운데 習의 해설 대목에서 보았던 “學之不已”와 정확히 호응한다. 「학이」편 2장의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君子務本)”는 표현을 미리 당겨 쓴다면, “學之正, 習之熟, 說之深而不已焉”이 바로 그 근본의 실질적 내용이다. 「학이」편 편제의 “務本之意”도 마찬가지이다.

75) 『주자어류』, 677면. “今有一善, 便欲人知; 不知, 則便有不樂之意. 不特此也, 人有善而人或不知之, 初不干己事, 而亦爲之不平, 況其不知己乎! 此則不知不慍, 所以爲難.”(時舉) 問: “學者稍知爲己, 則人之知不知, 自不相干, 而集注何以言‘不知不慍者, 逆而難’?”(賀孫).

76) 田中謙二, 「朱門弟子師事年攷」, 230면; 陳榮捷, 『朱子門人』, 328면.

이때의 學은 배운 바를 자기화하는 習의 의미로 읽어야 한다고도 이미 지적한 바 있거니와, 그렇다면 주자의 주석은 「학이」편 1장의 마지막 단어인 句字를 다시 배움의 처음으로 되돌리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되돌림을 좇을 때 배움의 “正”은 선한 본성의 “覺” 혹은 “先覺之所爲”라는 1절의 주석과 공명한다. 1절 주석에서 주자가 학의 개념으로 서술한 문장과 이 지점의 “正”은 같거나 적어도 꽤 근접한 시기에 씌어졌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겠다.

그런데 한편으로 배움이 正의 한정을 받는다면 學=效라는 훈고의 함의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애초에 배움을 본받음으로 풀이한 것은 知와 能 혹은 知와 行을 포괄하기 위해서였다. 범조우가 “선왕의 도”를 배운다고 배움의 대상을 규정하는 방식에 대해 주자는 마뜩찮아 했다. 배움의 기쁨을 도와 같은 추상적 수준에서 규정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논어』의 배움이란 仁을 배우는 것이라는 胡寅의 견해에 부정적이었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이다. 글씨 쓰거나 활쏘기를 배우고 익히는 경우에도 기쁨이 생긴다고 하면서, 사랑좌가 말한 앓을 때와 서 있을 때의 익힘처럼 구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길 원한다. 주자에게는 구체적 앓과 행위를 두루 다 포괄하는 말이 본받음이었다. 주자는 배움이 대학과 소학을 구분 없이 아우르는 뜻으로도 해석했다.⁷⁷⁾ 學之正은 여기에다 미묘한 균열을 내며 주자 자신이 견지한 배움의 포괄성을 스스로 제약하는 효과가 있다. 물론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본받음의 포괄성과 배움의 올바른 사이에 형성되는 긴장이 배움의 본령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말이다.

이러한 미묘한 의미 변화를 함축한 주자의 주석은 궁극적으로 1장의 기본 취지가 句字에 이르는 상승의 단계론으로 이해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자의 주석으로 마무리되면 句字되기가 목적처럼 부각되기 십상이다. 그렇지만 句字가 句字일 수 있는 까닭은 배움-익힘-기쁨을 근본으로 삼기 때문이다. 윤돈과 정자의 주석을 앞에다 배치하고 주자 자신의 견해를 뒤에 붙인 주석 방식은, 이 셋의 주석이 하나의 주석처럼 읽히기를 의도하고 있다. 윤돈의 주석에서 먼저 배움이 환기되고 이어지는 정자의 주석에서 句字에 이르는 과정이 제시되었다. 주자는 정자의 주석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함으로써, 다시 배움의 처음으로 복귀한다. 이 과정에서 주자의 주석은

77) 범조우에 대한 논평과 대학·소학 구분은 각각 『논어혹문』, 609면과 608면; 호인과 사랑좌에 대한 언급은 각각 『주자어류』, 673면과 682면 참조.

셋으로 구성된 하나의 목소리와 마찬가지로 된다.

『논어혹문』 시기의 주자는 이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1장의 1~3절을 각각 배움의 ‘처음 · 중간 · 최종’ 단계로 이해했다. 즉 說은 “學之始”에, 樂은 “學之中”에, 군자는 “學之終”에 해당한다고 하여 단계별 상승처럼 풀이하였다.⁷⁸⁾ 해석의 무게중심이 자연스럽게 최종 단계의 군자로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이후 어느 시점에서 해석이 달라져 지금의 주석처럼 해석하게 된 것이다. 그 전환의 시점을 정확하게 고구하기는 힘들지만, 주자의 주석이 이러한 변화를 거쳐 이른 결과임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하다. 『주자어류』에는 처음 · 중간 · 최종의 단계론으로 1장을 해석하면 어떤 지 묻는 항의강을 향해, 적잖은 곡절과 함의가 담긴 1장을 세심하게 읽어야 한다고 호되게 나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⁷⁹⁾ 이 문제가 주자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주자가 우려한 상승의 단계론이란 배움이 수직적 고양의 이미지 형상으로 구축되는 것을 뜻한다. 주자가 『논어』의 “學”을 군자론 혹은 성인론과 결부시키는 데에 유보적이었던 근본적인 이유이다. 주자가 해석적 계통을 세운 바, 정자 이래 확립되어 온 배움이란 상승보다는 지속에 가깝다. “그치지 않음(不已)”이 상징하듯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이다. 주자에게 배움의 무게중심이 꺾의 억힘에 있다는 앞서의 언급도 이런 취지에서이다. 說의 기쁨은 수직적 고양감이라기보다는 수평적 확산에 가깝다. 이 사실을 환기하는 주자의 목소리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논어집주』 곳곳에서 들린다.

공자가 자신의 삶을 연령의 단계로 나누어 진술하는 「爲政」편의 주석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15살의 “志于學”에서 70살의 “從心所欲不踰矩”에 이르기까지 구분지어 회고하는 공자의 말에 대해, 주자는 정자의 주석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공자께서 덕에 나아간 순서가 이와 같다고 스스로 말씀하신 것은 성인이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고, 다만 배우는 자들을 위하여 법을 세”워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그런 다음 『맹자』를 원용하여 “구덩이를 채운 뒤에 나아가고 문장을 이룬 뒤에 통달한다(盈科而後進, 成章而後達)”는 유명한 구절을 붙였다.⁸⁰⁾

78) 『논어혹문』, 607~608면.

79) 『주자어류』, 678~679면.

80) “孔子自言其進德之序如此者, 聖人未必然, 但爲學者立法, 使之盈科而後進, 成章而後達耳.”

『맹자』의 해당 구절이 등장하는 「진심상」의 주석에서 주자는 “배움은 마땅히 차츰 나아가는 것으로 해야 능히 도달할 수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원문의 표현으로는 “漸”이다. “그치지 않음”의 “不已”와 동일한 뜻이다. 이것은 구덩이를 채운 다음에 지속되는 물의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물이 구덩이를 채운다는 것은 물 표면 높이의 회복으로 곧 수평의 회복이다. 이 수평의 회복을 통해 漸의 진전이 쉽 없이 지속된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근본(本)”의 힘이다.⁸¹⁾ 이 문제는 같은 표현이 나오는 「離婁下」의 경우 강물의 원천에서 계속 솟아나는 샘물에 비유된다.⁸²⁾

샘물로 비유된 근본은 두 가지 함의를 가진다. 하나는 중단 없이 지속되는 원천이라는 의미에서의 근본이고, 다른 하나는 위치상 처음에 해당하는 시원의 자리이지만 물의 흐름 전체에 작용한다는 점에서의 근본이다. 근본은 처음의 발원처이자 동시에 어디에나 편재한다. 그러므로, 1장 주자 주석의 마지막 구절이 군자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배움의 처음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 재귀적 순환 구조는 『논어』 20편 전체에서 「학이」편이 차지하는 위상이며 「학이」편 전체에서 1장에 부여된 의의라고도 하겠다. 읽기의 차원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위정」편 이후로도 「학이」편은 늘 읽기에 동반되어야 하며 「학이」편 2장 이후의 읽기에도 1장은 늘 함께 읽는 것이나 다름없다. 1장의 주자 주석은 바로 이를 구조화해 놓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학이」편 모두에 밝혀 놓은 주자의 편제가 궁극적으로 함의하는 바이다. 다시 「학이」편제로 돌아가 보자. 거기서 주자는 “근본에 힘쓰는 뜻이 많다(多)”라고 하였다. 모두 다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그렇다는 말이다. 당장 「학이」편 5장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의 영역에 해당하고, 15장 자공과의 대화에서 등장하는 “切磋琢磨”도 깊이의 심화로 이해되므로 근본에 힘쓰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주자의 주석은 이 문제를 다시 근본의 차원으로 전환시키려고 한다.⁸³⁾ 이러한 읽기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당연히 1장을 제대로 읽음으로써 체득할 수 있다. 1장의 주자 주석이 배움의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순환 구조를 환기한 까닭이기도 하다.

81) 『맹자집주』 「진심상」의 주석. “言學當以漸，乃能至也。成章，所積者厚而文章外見也。達者，足於此而通於彼也。此章言聖人之道大而有本，學之者必以其漸，乃能至也。”

82) 『맹자집주』, 「이루하」. “原泉混混，不舍晝夜。盈科而後進，放乎四海，有本者如是，是之取爾。” 주자의 주석은, “言水有原本，不已而漸進以至於海。如人有實行，則亦不已而漸進以至於極也。”이다.

83) 구체적인 논의는 자리를 달리 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Ⅶ. 나가며

이상에서 살폈듯이, 주자의 『논어집주』는 그 자체로 문헌학적 방법을 적극 활용한 문헌학적 저작이다. 주석 모음이라는 제목처럼 주자는 여러 선학들의 견해를 두루 아우르는 한편으로 새롭게 재배치하였다. 물론 주자 자신의 입장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풀이를 함께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긴요한 기존 주석을 가급적 원용하는 방식으로 저술되었다. 이에 따라 이질적인 주석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통합되기도 하며 서로 보충하기도 한다. 이들 주석을 구분해서 읽느냐 통합해서 읽느냐에 따라 의미의 층위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논어집주』는 문헌학적 읽기의 대상이기도 하다. 『논어집주』의 최종 형태에 이르기까지 주자는 다양한 주석들과의 심각한 고투 과정을 거쳤다. 주자의 주석은 많은 질문을 건넬 수 있게끔 조직되었다. 이런 양상이 최종적인 표현 형식만으로는 잘 포착되지 않는다. 『논어집주』의 주석은 최대한 간명함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논어집주』에 내포된 다층적인 함축을 잘 읽고 잘 듣기 위해서는, 관련 주자 문헌을 두루 원용하여 축적의 나이테들을 하나씩 들추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논어정의』와 『논어혹문』을 위시하여 『주자어류』와 문집의 기록들을 시간에 따라 재배열하고, 그런 다음 『논어집주』의 주석을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며 다시 읽었다. 그 결과 장기간 수정과 개고를 거듭한 『논어집주』의 주자 주석은 감추어진 두께도 엄청나게 두터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어집주』의 「학이」편 편제는 『논어집주』 이전의 주석서의 체계를 계승하는 한편으로 그들과는 구별되는 명확한 해석적 입장을 천명하면서 「학이」편의 독특한 위상을 드러내었다. 제 1절의 주석 읽기를 통해서, 정자와 사랑좌 그리고 주자의 주석이 긴밀한 상호 연계 속에서 배치되었음을 보았다. 아울러 선학의 주석에 의거해 간접적으로 발화하는 형식이 전면화된 것을 통해서, 잘 말하는(쓰는) 자이기에 앞서 잘 들으려(읽으려) 한 주자의 자세도 엿보았다. 제 2절의 주석 읽기에서는, 주자가 정자의 주석을 전면화하는 방식으로 ‘朋-衆-樂’의 연쇄를 마련하여 다른 견해들과 경합하는 양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제 3절의 주석 읽기를 거치면서, 배움을 상승의 단계론으로 이해하는 방식에 저항하면서 해석적 순환을 만들어내는 주석의 구조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 글은 『논어집주』에 대한 일련의 문헌학적 읽기 작업을 수행해 가는 도입 단계의 산물이다. 그래서 『논어집주』의 극히 적은 일면만을 다루었을 뿐이다. 향후 『논어집주』의 주석 읽기가 이어짐으로써 개별 장들의 주석이 어떤 연계를 빚어내며 상호 공명하는지도 눈여겨 볼 일이다. 이러한 중첩 과정을 거쳐 「학이」편 나아가 『논어집주』주석의 전체상이 드러나길 기대해 본다. 아울러 명대에 간행된 『논어집주대전』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논어집주』를 기준으로 『논어집주대전』에 대한 문헌학적 비평을 수행하는 작업도 필수적인 과제라 하겠다. 이 과정에 『논어집주』를 둘러싸고 펼쳐진 무수한 읽기의 흔적들과 주석들이 합류한다면, 『논어집주』 읽기의 역사를 향하는 데에 적잖은 진전이 있을 것이다. 특히 이 길에는 무엇보다 조선 학자들이 남겨준 문헌학적 성과들이 신뢰할 만한 길잡이 역할로 동행해 줄 것이라 확신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金履祥, 『論語集注攷證』(欽定四庫全書)
黎靖德, 『朱子語類』, 北京: 中華書局, 1986
劉寶楠, 『論語正義』, 北京: 中華書局, 1990
陸德明, 『經典釋文』(欽定四庫全書)
伏勝, 『尚書大傳』(四部叢刊初編)
魚有鳳, 『論語詳說』(Harvard-Yenching Library 소장본)
倪士毅, 『四書輯釋』(北京大圖書館本)
王懋竑, 『朱熹年譜』, 北京: 中華書局, 1998
張揖, 『廣雅』(欽定四庫全書)
程樹德, 『論語集釋』, 北京: 中華書局, 1990
朱子, 『朱子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邢昺, 『論語注疏』(武英殿十三經注疏)
胡炳文, 『四書通』(欽定四庫全書)
皇侃, 『論語集解義疏』(欽定四庫全書)
- 김우형, 『주희철학의 인식론』, 심산, 2005
류탁일, 『한국문헌학연구』, 아세아문화사, 1990
손영식, 『이성과 현실』, 울산대 출판부, 2013
심경호, 『한국한문기초학사』(3), 태학사, 2012
위잉스 저, 이원석 역, 『주희의 역사세계』(상·하), 글항아리, 2015
이노우에 스스무 저, 이동철 외 역, 『중국출판문화사』, 민음사, 2013
이영호, 『동아시아의 논어학』,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9
전병욱, 「朱子 仁說에서 ‘知覺’의 의미」, 『철학』 92, 2007
피터 볼 저, 김영민 역, 『역사 속의 성리학』, 예문서원, 2010
황준지에 저, 안유경·최영진 역, 『동아시아 유교경전 해석학』, 문사철, 2009
황준걸 저, 이영호 역주, 『일본 논어 해석사』, 성균관대 출판부, 2011
葛兆光, 『中国思想史』 第2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0
顧宏義, 『朱熹師友門人往還書札彙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8
高尙渠, 『論語岐解輯錄』, 北京: 中華書局, 2011
唐明貴, 『論語學史』, 北京: 社會科學出版社, 2009
大槻信良, 『朱子四書集註典據攷』, 臺北: 臺灣學生書局, 1976
劉海峰·李兵, 『中國科舉史』, 上海: 東方出版中心, 2004

- 束景南 著, 김태완 역, 『주자평전』(上·下), 역사비평사, 2015
- 束景南, 『朱熹年譜長篇』,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1.
- 錢穆, 『朱子新學案』, 台北: 三民書局, 1980
- 周元俠, 『朱熹의《論語集注》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2
- 陳來 著, 이종단 외 역, 『주희의 철학』, 예문서원, 2002
- 陳來, 『增訂本 朱子書信編年考證』, 北京: 三聯書店, 2007
- 陳榮捷, 『朱子門人』, 臺北: 臺灣學生書局, 1982
- 黃懷信, 『論語彙校集釋』(上·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
- 高畑常信, 『宋代湖南學の研究』, 東京: 秋山書店, 1996
- 衣川強, 『宋代官僚社会史研究』, 東京: 汲古書院, 2006
- 田中謙二, 「朱門弟子師事年攷」, 『田中謙二著作集』(3), 東京: 汲古書店, 2001
- 佐野公治, 『四書學史の研究』, 東京: 創文社, 1988
- 강영순 외, 「『논어』의 ‘學’ 개념 연구와 교육적 시사점 고찰」, 『유교사상문화연구』 79, 2020
- 임현규, 「朱子の 仁 개념」, 『철학연구』 86, 2003
- _____, 「논어에서 學의 의미」, 『東方學』 33, 2015
- 顧音海, 「朱熹《論語集注》殘稿的幾個問題」, 『上海魯迅研究』 2014年第4期
- 徐德明, 「《四書章句集注》版本考略」, 『華東師範大學學報』, 1998年第4期
- 王傳龍, 「朱熹《論語集注》手稿的塗抹與成書過程」, 『廈門大學學報』, 2017年第5期
- 殷漱玉, 「朱熹《論語集注》文獻研究」, 南京師範大學 碩士論文, 2017
- 周元俠, 「《论语集注》中“学”字释义解析」, 『福建论坛』, 2013年 第11期
- 朱天助, 「朱子四書類著述二十一種版本述考」, 『閩江學院學報』, 2014年 第1期
- 周春健, 「元代四書學研究」, 華中師範大學博士論文, 2007
- 陳逢源, 「從「中和」到「仁說」-朱熹《四書章句集注》「愛之理, 心之德」之義理進程考察」, 『東吳中文學報』 第二十九期, 2015

‘國學大師’(<https://guoxuedashi.com>)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https://ctext.org>)

A Philological Reading of Zhu Xi's "Variorum of the Analects"

Ryu, Jun-pil

This article suggests the method of philological reading to closely examine the Zhu Xi's variorum edition for "the Analects of Confucius" in its formation. Zhu Xi actively utilized the philological researches to explore the significance of "The Analects of Confucius," and his annotations (ranging from the collection from the older interpretations to his own comments) clearly exhibits a peculiarity as a philological work. Zhu Xi collected and reassigned the various annotations with his own, which can be read in different displacement of reading.

As a result, it could be confirmed that the level of meaning depends on how these annotations are read. At the same time, Zhu Xi's "Variorum of The Analects of Confucius" in itself is a subject of philological reading. Up to the final form of his variorum edition, Zhu Xi modified for a long time through the struggle with various annotators. In order to examine this aspect, I rearranged the related general works of Zhu Xi over time and read them in accordance with his annotations to "The Analects of Confucius."

Key Words : Zhu Xi, "*Variorum of The Analects*", philological reading, *The Analects of Confucius*